

# 호탄(Khotan, 于闐) 라악(Rawak) 寺院址 塑佛像의 研究

林 玲 愛  
(梨花女大)

차 례

I. 머리 말	IV. 라악사원지 塑佛像의 樣式的 特徵
II. 라악사원지의 構造	및 編年
III. 라악사원지 塑佛像의 形式과 製作技法	V. 라악사원지 塑佛像의 意義
1. 라악사원지 塑佛像의 形式	VI. 맺 음 말
2. 製作技法	

## I. 머리 말

서역남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옛 호탄국<sup>1)</sup>은 중국령 투르키스탄(Chinese Turkistan)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옛부터 독자적인 문화와 종교를 지닌 곳으로 주목되어 왔다. 이러한 호탄국의 영역에는 現 호탄(和田)市를 중심으로 많은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 예를 들면 다라잔 동(Darabzan-dong), 라악(Rawak), 단단-윌릭(Dandan-uilik), 파하드-벡-야일라키(Farhad-beg-yailaki), 발라와스트(Balawaste), 카달릭(Kadalik), 요트칸(Yotkan), 타리쉴락(Tarishlak), 마자르-탁(Mazar-tagh), 키길릭(Kighillik), 악-시필(Ak-sipil) 등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수의 소불상이 출토된 곳으로는 라악(Rawak)사원지를 들 수 있는데, 스타인(Aurel Stein)에 의해 발굴되어 밝혀진 것은 약 90 여점, 그 후 1927~28년 트린클러(Emil Trinkler)에 의해 40 여점, 그 밖에 호탄시내의 호탄박물관, 일본 NHK 방송국에 의한 간단한 조사 등에 의해 추가로 그 면모가

---

1) 곤륜산맥에서 북으로 흐르는 유룽-카쉬 다리야(Yurung-kash Dariya, 玉龍喀什, 白玉河)와 카라-카쉬 다리야(Kara-kash Dariya, 喀拉喀什, 黑玉河)의 사이에 위치한 동서 35km, 남북 20km 정도에 달하는 오아시스도시인 지금의 호탄(Khotan 和田)은 前漢 武帝時代 이후 서역남로의 서부지역 일대에서 세력을 떨쳤던 옛 호탄국(于闐國)과는 그 판도가 다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호탄'이라는 지명의 영역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데, 본고에서 말하는 '호탄'은 지금의 호탄시를 위시하여 한때 호탄국의 영역으로 '호탄적'인 특성을 지닌 유물이 발견되는 주변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것임을 전제하여 둔다.

밝혀진 바 있다.<sup>2)</sup>

지금까지 이곳 호탄을 중심으로 하는 라악사원지의 부조불상 만을 가지고 논의된 논문은 필자가 아는 한 없으며<sup>3)</sup>같은 호탄에서 오오타니(大谷)탐험대에 의해 수집된 금동불두<sup>4)</sup>와 호탄출토 테라코타,<sup>5)</sup> 그리고 호탄부근의 여러 유적지에서 출토된 板繪 및 壁畫<sup>6)</sup> 및 호탄출신의 화가 尉遲乙僧<sup>7)</sup>에 관한 기왕의 논고가 여러편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처럼 지금까지 이곳 라악사원지의 소불상 만을 가지고 논의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호탄의 많은 유적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塑佛像이 한꺼번에 출토되고 있고, 또 탑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유적지의 형태가 거의 매몰되기 직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비교적 고찰하기 용이한 라악사원지의 소불상을 중심으로 고찰토록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국령 투르키스탄(Chinese Turkistan)의 서역남로에 산재해 있는 불상들 가운데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라악사원지의 소불상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간다라 및 인도 내지 이란의 불상조각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서역과 중국불상의 형

- 
- 2) 1991년 6월 5일부터 약 한달여에 걸쳐 동국대학교 실크로드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답사에서 이곳 호탄을 방문하여 라악사원지를 조사하고자 여러번 시도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이 모래에 파묻혀 있고 또 심한 모래바람으로 직접 유적지를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단지 호탄시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라악사원지출토 유물들을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 3) 그러나 서역의 불상을 논의하는 과정중에는 라악의 부조 塑佛像은 빠지지 않고 서술되고 있다. (上野照夫(1962), 「西域の彫塑」, 『西域文化研究』 第5, 中央アジア佛教美術, 法藏館, pp. 213~238 ; 熊谷宣夫(1962), 「西域の美術」, 『西域文化研究』 第5, 中央アジア佛教美術, 法藏館, pp. 86~91 ; 上野照夫(1970), 「西域の美術」, 『佛教藝術』, 75, pp. 54~59) ; 山本智敏(1957), 「西域美術の系統」, 『密教文化』 38~39(『佛教美術の源流』, 東京美術, 1980에 再録)
  - 4) 熊谷宣夫(1959), 「コ-タン將來の金銅佛頭」, 『美術研究』 200, pp. 85~103 ; 熊谷宣夫(1962), 「西域の美術」, pp. 72~77 참조. 이 불두는 커다란 눈과 수염 등에서 미란(Miran)의 벽화에서 보이는 불상 혹은 날개달린 천사상(Aurel Stein(1921), *Serindia: Detailed Report of Archaeological Explorations in Central Asia and Westmost China*, vol. I, Oxford, pls. 40, 42 참조)과 흡사한 모습으로 간다라조기 石造像에서 그 모델링을 찾을 수 있다. 이곳 중국령 투르키스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거의 완전한 금동불두로 특히 주목된다.
  - 5) 熊谷宣夫(1944), 「西域塑造雜記 -主として恩賜京都博物館大谷伯菟集品として」, 『清閑』 19, pp. 33~36 ; 熊谷宣夫(1963), 「コ-タンのテラコッタ」, 『みづえ』 699, pp. 9~11 ; 島田貞彦(1937), 「中央亞細亞和關出土の陶製動物小像に就いて」, 『考古學雜誌』 27·8, pp. 8~11 참조.
  - 6) Natalia Diakonova(1960), "A Document of Khotanese Buddhist Iconography", *Artibus Asiae*, Vol. X X III, pp. 229~30 ; Joanna Williams(1973), "The Iconography of Khotanese Paintings", *East & West*, Vol. 23, pp. 109~154 ; 松本榮一(1931), 「和闐地方の佛畫に見る一特殊性とその流傳」, 『東方學報』 京都二冊, pp. 227~237 ; 松本榮一(1933), 「和闐壁畫の一斷片について」, 『國華』 507, pp. 37~41 ; 池田百合子(1980), 「西域南道とインドの關係 -多面・多像像に關する一考察-」, 松田壽男博士古稀紀念出版委員會編, 『東西文化交流史』, 雄山閣刊, pp. 58~74 ; 王冀青(1984), 「古代和田派美術初探」, 『敦煌學輯刊』 1984-2 참조
  - 7) 隋·唐代에 걸쳐서 활약했던 호탄왕족 출신의 화가 尉遲跋質那, 尉遲乙僧부자에 관한 자세한 논고로는 長廣敏雄(1984), 「西域畫家なる尉遲乙僧」, 『中國美術論集』, pp. 318~325 ; 權寧弼(1987), 「尉遲乙僧畫法の 根源과 擴散」,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I』, 一志社, pp. 101~116 ; 金維諾(1987), 「闐立本與尉遲乙僧」, 『中國美術史論集』, pp. 133~142 ; 張光福(1985), 「尉遲跋質那和尉遲乙僧」, 『絲綢之路造形藝術』, 新疆人民出版社, pp. 177~192 ; 張光福(1985), 「尉遲乙僧의 繪畫及其成就」, 『絲綢之路造形藝術』, 新疆人民出版社, pp. 193~201 참조.  
호탄王家 尉遲氏는 늦어도 後漢 明帝시대(57~75)에는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후 唐代까지 계속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고로는 井ノ口泰淳(1960), 「ウテン語資料によるVisa王家の系譜と年代」, 『龍谷大學論集』 364, pp. 27~43 ; 榎一雄(1978), 「小月氏と尉遲氏」(末松保和博士古稀紀念會編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下卷) pp. 391~418 ; 北村高(1977), 「尉遲氏の中國入居について」, 『東洋史苑』 11, pp. 19~36 ; 殷晴(1983), 「于闐尉遲王家世係考述」, 『新疆社會科學』 1983年 第2期 참조.

식 및 양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 이곳 라악사원지의 소불상이 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전개과정 상 필수불가결한 호탄국의 역사 및 불교에 관한 상세한 내용,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오타니(大谷)탐험대의 호탄출토 소불상에 관해서는 본 논문에서 지면관계 상 생략하게 되었으므로 양해 바란다.<sup>8)</sup>

## II. 라악사원지의 構造

호탄이 가장 그 판도가 컸을때인 4~6세기에는 그 영역이 동으로는 니야(Niya)에서부터 서로는 야르칸드(Yarkand)에까지 달해 있었으며(도 1), 401년 이곳을 방문하였던 법현이 ‘옛 호탄의 도성내에는 커다란 사찰만도 14개<sup>9)</sup>를 헤아린다’고 서술하였듯이<sup>10)</sup> 그 영내에는 크고 작은 수십개의 城市와 사원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옛 호탄국 뿐만아니라 한때 호탄국의 속령이었던 부근의 많은 유적지에서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본고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라악사원지를 위시하여 Dandan-ulik, Darabzan-dong, Balawaste, Farhad-beg-yailaki, Kadalik, Yotkan, Tarishlak, Mazar-tagh, Kighillik, Ak-sipil 등이다.<sup>11)</sup> 이들 유적지중 특히

8) 이에 관해서는 拙稿, 「호탄(Khotan 于闐)의 佛像」(『실크로드(假題)』, 한국언론출판간행회, 1993 출판예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9) 그 중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찰명은 다음과 같다. 1) 牛頭山 아래 瞿摩帝寺, 2) 娑摩若寺, 3) 地迦娑縛那寺, 4) 鼓池寺, 5) 麻射寺, 6) 贊摩寺이다.(堀謙徳(1912), 「于闐考」(講), 『史學雜誌』, 23-5, pp.18~20 ; 스타인·A., 堀謙徳譯(1912), 「古代の于闐」, 2, 『東洋學報』 2-2, pp.277~278) 이 중 우두산에 관해서는 李吟屏(1992)의 「于闐牛角山新考」(『新疆大學學報』, 1992-3, pp.61~64), 이 중 가장 큰 사찰인 瞿摩帝寺에 관해서는 光島督(1953), 「于闐の名刹グマテイ寺について」(『東洋史學論集』 1, pp.111~117), 光島督(1954), 「于闐國ツアルマ寺の僧侶等の流轉に就いて」(『史潮』 51, pp.58~59) ; 光島督(1954), 「ツアルマ寺の僧侶等の流轉に就いて」(東京教育大學東洋史研究室(編), 『東洋史學論集』 3, pp.359~368) 참조.

10) ‘...이 나라에는 작은 것은 제외하고도 14개의 큰 사원이 있었다. ...’(『法顯傳』 ‘...其國中 十四大僧伽藍 不數小者. ...’)

11) 이들 옛 호탄국의 유적들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이는 19세기초 레무자( Abel P. Remusat)를 들 수 있지만( Remusat(1820), *Histoire de la Ville de Khotan*, Paris), 이 지역에 관한 실제 조사는 1893년 드·랑스(Dutreuil de Rhins), 그르날(Fernand Grenard)에 의한 것으로 이 때 비로소 이곳 호탄지역에 관한 고고민속자료의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1896년 헤딘이 호탄 주변의 古址를 조사하였으나(Gösta Montell(1936), "Sven Hedin's Archaeological Collections from Khotan", *The 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No.7, Stockholm, pp.145~221 ; Gösta Montell(1938), "Sven Hedin's Archaeological Collections from Khotan" II, *The 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No.10, Stockholm, pp.83~113) 가장 본격적인 조사는 1900년 제1회의 스타인탐험에 의한 것으로 그 업적은 실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호탄유역의 중요한 유적지는 대부분 스타인(Aurel Stein)에 의해 발굴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tein A.(1903), *Sand-buried Ruins of Khotan : Personal Narrative of a Journey of Chinese Turkestan*, London ; Stein A.(1907), *Ancient Khotan : Detailed Report of Archaeological Explorations in Chinese Turkestan*, 2 vols, Oxford) 2년후인 1902년에는 일본의 大谷探檢隊에 의해 제1회 탐험이 시작되었는데 1902~04년에 걸친 제1차탐험때는 渡邊哲信과 堀賢雄이 이곳 호탄에 도착하여 이곳 최대의 수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금동불두를 수집하였고, 1908~09의 제2차탐험대는 橋瑞超가, 1910~14년의 제3차탐험대는 橋瑞超와 吉川小一郎이 각각 호탄을 방문하였다.(『新西域記』 上卷·下卷, 有光社 1937.4 ; 藤枝晃(1983), 「大谷探檢隊とその 收集品」, 『京都と絹の道 大谷探檢隊八十年記念』 京都市社會教育振興財團, pp.35~38 ; 藤枝晃

Dandan-uilik<sup>12)</sup>에서는 10 개의 사지에서 많은 수의 불상과 벽화<sup>13)</sup>, 그리고 板繪들이 출토되어 주목되었다. 그 밖에 Darabzan-dong 과 Farhad-beg-yailaki 에서 다수의 불상이 출토된 바 있으며, 또 Balawaste 에서는 조금 시대가 내려가지만 도상적으로 흥미를 끄는 板繪들이 다수 출토되어 주목된 바 있다.<sup>14)</sup> 그러나 이들 유적지들은 소불상에 있어서는 현재 특기할 만한 것을 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고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라악(Rawak)<sup>15)</sup>사원지는 지금의 호탄시 동북방, 유룽-카쉬강(Yurung-kash Dariya, 玉龍喀什, 白玉河) 동쪽 연안의 사막중에 위치해 있는데, 호탄시에서는 동북쪽으로 약 50 km 떨어진 곳이다. (도 1) 이곳은 1900년 Stein 의 제 1회 탐험때 처음 발굴되었는데, 벽에 의해 둘러싸여진 장방형의 뜰 안에는 복잡한 구성을 지닌 서역남로 최대의 탑이 있고, 그 벽의 안과 밖에는 거대한 소조상들이 장식되어 있다. (도 2, 3) 이 사원지의 方形內壁은 그 크기가 42.3 m×48.9 m 에 달하며, 그 벽의 두께는 90 cm 에 달한다. 이처럼 탑을 중심으로 주위에 周壁(또는 회랑)을 두르는 형식은 서북인도지역의 불교사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sup>16)</sup> 그 중앙에는 한면이 약 23.8 m 이고 높이가 9 m 인 방형기단위에 원래 복발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탑의 유구가 남아있다. 둥근 탑의 사면에는 계단이 있어 탑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남아있는 탑 크기는 직경 9.6 m, 높이 7 m 에 달한다.<sup>17)</sup>(도 4)

이같이 중앙의 복발탑을 중심으로 한 십자형태의 불탑은 간다라의 샤지-키-데리(Shahji-ki-Dheri)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18)</sup>이 이외에도 시기는 조금 늦지만 8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프가니스탄 가즈니(Ghazni)의 테페-사르다르(Tepe Sardar) 小塔과도 상통된다.

(1989), 「大谷コレクションの現状」, 『大谷探検隊將來西域文化資料選』, pp.109~119) 1827~28년에는 에밀 트린클러가 발굴(Gerd Gropp(1974), *Archäologische Funde aus Khotan Chinesisch-Ostturkestan*, Verlag Friedrich Röver, Bremen)하였고, 1929년에는 황문필이 이곳 호탄 일대를 방문, 조사하였다.(黃文弼(1940), 「古代于闐國都之研究」, 『史學季刊』第1卷 第1期, 1940年 3月(黃烈編, 『黃文弼歷史考古論集』, 文物出版社, 1989에 再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 호탄을 방문하였지만 정작 라악사원지를 찾아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였던 사람은 Stein과 Trinkler에 불과하다.

12) Dandan-uilik은 호탄시 동북방의 사막중에 위치해 있으며, 주위에는 약10여개의 사지가 산재해 있다. 1896년 Sven Hedin이 이곳을 처음 방문하여 a, b사지를 발굴하였으며, 그 후에는 1900년부터 1901년에 걸쳐서 스타인의 제1차탐험때 이곳을 발굴하였는데 그 때 제2사지에서 「龍女傳說」 벽화가 발견된 바 있다.(Stein A.(1903), *Sand-buried Ruins of Khotan*, pp.270~294 ; Stein A.(1907), *Ancient Khotan*, pp.242~255 ; 堀謙德(1912), 「于闐考」 pp.18~20 ; 스타인·A., 堀謙德譯(1912), 「古代の于闐」 2, pp.432~433)

13) Dandan-uilik출토의 벽화에 관해서는 「新疆和田丹丹地區寺院壁畫」, 『美術研究』1979-2 참조

14) 이들 板繪에 관한 논고로는 주 6 참조

15) Rawak은 '높은 建造物(High Mantion)'이라는 뜻

16) 田中豊藏(1933), 「支那佛寺の原始形式」, 『美術研究』16, p.140 ; 村田治郎, 「中國伽藍配置の溯源」, 『佛教藝術』16號, pp.65~70

17) Stein A.(1903), *Sand-buried Ruins of Khotan*, p.452 ; Stein A.(1907), *Ancient Khotan*, vol. I, pp.484~501

18) 桑山正進(1974), 「タキシラ佛寺の伽藍構成」, 『東方學報』46, pp.347~348 ; 이 밖에 시기는 조금 늦지만 方形 周壁 내에 십자형의 탑이 함께 남아있는 예로는 동파키스탄의 Paharpur(Prudence R.Myer, "Stupas and Stupa-shrines", *Artibus Asiae*, vol.XXIV.1, pp.25~34 ; 村主恵快(1967), 「東バキ스탄の佛教遺跡」, 『佛教藝術』65, pp.87~90), Salban Vihara 유적 등이 있다.(村主恵快(1967), pp.90~91)

인접지역에서는 같은 호탄내에서 약간 동쪽에 위치해 있는 도모코 야르(Domoko Yar)의 Farhad-beg-yailaki 의 제 6 사지(F VI)<sup>19)</sup>에서도 유사형식을 찾을 수 있다.<sup>20)</sup>

內壁의 남동쪽과 남서쪽 바깥부분에는 내벽과 평행하게 외벽의 흔적이 있는데(도 3) 그 두께는 약 15 cm 이며, 남동쪽으로 6 m, 남서쪽으로 10 m 가량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 외벽의 안과 밖에도 소조상이 있는데 이 외벽은 남쪽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외벽을 제작하는 도중에 이 사원지가 폐기되어 제작이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심한 파괴로 인하여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남아있지 않지만 만약 이 외벽이 완성되었다면 탑을 둘러싸고 안팎에 소조상으로 장식되어 있는 회랑이 형성되어졌을 것이고, 그 회랑은 원래 어떤 형태이었던지 알 수 없지만 나무로 된 지붕에 의해 덮여져 보호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중국의 학자에 의해 추정 복원된 모습은 다음과 같다.<sup>21)</sup>(도 5) 이곳 라악사원지의 경우 상들의 보존상태로 미루어 인위적인 파괴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몰되면서도 큰 손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외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사원지가 폐기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內外壁, 塔 등은 모두 햇볕에 말린 벽돌을 사용하여 축조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흰색의 회칠이 되어 있었다. 현재 內壁은 높이 3m 내외만을 남겨놓고 거의 붕괴된 상태이며, 두께가 약 90 cm 에 달하는 내벽의 안과 밖에는 연이어서 거의 환조에 가까운 소조불입상이 병렬되어 있는데 像의 頭部를 지탱해주던 목재가 썩어 대부분의 頭部와 上半身이 결실되었다.<sup>22)</sup> 이 상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I, III장에서 후술토록 하겠다.

### III. 라악사원지 塑佛像<sup>23)</sup>의 形式과 製作技法

앞서도 서술한 것처럼 라악사원지 內壁의 안과 밖에 병렬되어 있는 부조불상들은 약 500 여 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의 면모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 1901년 4월 Stein 의 제 1 차 탐험때 약 91 구<sup>24)</sup>가, 그 후 1927~28년 Trinkler 에 의해 약 39 구<sup>25)</sup>가 밝

19) Stein A. (1928), *Serindia*, vol. III, plan 58 참조

20) 十字形평면을 지닌 佛塔은 그 밖에도 동투르크스탄내에서 야르-호토(Yar-khoto, 交河古城), 카라-호자(Kara-Khodja, 高昌城(Khocho)), 룩춘(Lukchun)부근의 키칙-하사르(Kichik-Hassar) 등지의 탑에서 그 계보를 찾을 수 있다. (熊谷宣夫(1965), 「西域佛寺の伽藍配置に關いて」, 『石田博士頌壽紀念東洋史論叢』, pp.119~222 )

21) 朱雲寶(1992), 「絲綢之路上的佛塔」, 『西域研究』1992年 第2期, p.64,65,67

22) Stein A. (1907), *Ancient Khotan*, vol. II, Pls.13~18 참조

23)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塑佛像'은 단순히 '흙으로 만든 佛像'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우선 틀로 찍어서 만든 것(型造)과 손으로 빚어 만든 것(手造)으로, 각각은 다시 구운 것(燒成式)과 굽지 않은 것(乾燥式)으로 나뉘어 지는데, 다시 말하면 型造燒成式, 型造乾燥式, 手造燒成式, 手造乾燥式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別稿를 마련하고자 한다.

24) Stein A. (1907), *Ancient Khotan*, vol. I, p.488

25) Gropp(1974), p.208

혀진 정도로(도 3) 라악사원지 부조상의 전체형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 보고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각 불상의 세부형식에 관해서는 Stein에 의해 발굴된 후 대영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되어 있는 상들<sup>26)</sup>, Trinkler에 의해 수집되어 독일 Bremen의 Übersee Museum과 Metropolitan Museum 등지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상들<sup>27)</sup>, 그리고 현재 호탄시내의 호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상들을 중심으로 서술토록 하겠다.

## 1. 라악사원지 塑佛像의 形式

이곳 라악부조불상의 형식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크게 2개의 群으로 분류하여 서술토록 하겠다. 제 1군은 內壁의 안쪽면에 위치한 불 보살상들, 제 2군은 內壁의 바깥면에 위치한 불 보살상들, 그리고 외벽의 안쪽면과 바깥면에 위치한 불 보살상군인데(도 3 참조) 이들은 다시 크기와 형식에 따라 세분화된다.

### ① 1군

제 1군은 앞서도 서술하였지만 탑을 둘러싼 內壁의 안쪽면에 장식되어 있는 불·보살상군을 일컫는데, 현재 발굴되어 있는 像의 비율로 따져보면 아마도 제 1군에 속하는 크고 작은 상들은 적어도 약 200여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8)</sup> 1군은 중심이 되는 약 270~280cm 가 넘는 거대한 불상<sup>29)</sup>과 약 160~180cm 정도 크기의 불 보살상을 교대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도 6) 그러나 內壁의 안쪽 네모서리부분에 특이한 형태의 광배를 지닌 불상(도 9, 10)을 배치한다거나, 네면에 위치한 입구 안쪽에 2구씩의 수문상을 배치하는 등(도 20) 다소의 변화를 주고 있으며, 像으로 덮여있지 않은 像과 像사이의 빈공간은 벽화로 장식하고 있다.<sup>30)</sup>

우선 이들 중 3m에 가까운 불입상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도 7) 현재 남아 있는 거상들은 두부까지 남아있는 것은 한점도 없고, 어깨이하의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혹은 허리이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허리 이하 부분만이 남아있다. 허리부터 발까지의 길이가 평균 약 160cm에 달하고 있어 전체상의 크기를 앞서와 같이 거의 3m에 가까울 것으로 보았는데, 대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상의 형식은 거의 동일한데, 특히 불의는 대부분이 通肩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옷입는 형식과 옷주름의 표현 등에서 전형적인

26) 스타인이 이곳 라악사원지에서 가져온 상들은 불, 보살의 頭像 17점과 광배파편을 포함하여 모두 53점으로 이 상들의 형식에 관해서는 Stein A.(1907), *Ancient Khotan*, vol. I, pp.503~506 및 Roderick Whitfield編集·解説(1984), 『西域美術』大英博物館, 스타인·コレクション(卷 3, 東京, 講談社) 圖63, 64, 65 및 도판해설 참조

27) Gropp(1974), pp.208~241

28) 필자가 분류한 1군에 속하는 상들은 스타인에 의해 노출된 부조상의 수만도 41구에 달하며(Stein A.(1907), *Ancient Khotan*, vol. III, pl.XL) 그 후 트린클러 등에 의해서도 부분부분이 드러났다.

29) 본 논문에서는 2m가 훨씬 넘는 커다란 상의 경우 편의상 '巨像'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다.

30) 像과 像사이의 공간에 그려져 있는 벽화에 관해서는 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살펴보기 곤란한 점이 있기도 하지만, 본 논문의 성격상, 像과 관계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간다라형식을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8) 그 밖에도 신체의 중심이 한쪽 다리에 두어져 있는 모습이라든지, 佛衣가 좌우대칭을 이루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 그리고 허리까지 들려져 있는 오른손을 따라 올라온 불의의 표현, 그리고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불의 끝자락의 모습까지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옷자락을 잡고 있는 왼손의 모습과 그 아래로 내려져 있는 옷의 끝자락이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모습 역시 간다라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제 1군의 상들중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거대한 불입상의 광배에 입상의 화불이 뿔뿔히 배치되어 있는 거대한 광배를 지닌 불입상인데, (도 9, 10) 이 특이한 광배는 內壁의 안쪽 네모서리에 2구씩 배치되어 있다. 이 광배는 가장 넓은 부분이 약 230 cm에 달하며, 그 안의 化佛들은 마치 부처의 몸에서 솟아나오는 형상<sup>31)</sup>으로 배치되어 있다. 같은 틀에서 찍어낸 것으로 보이는 화불들은 공간의 넓이에 따라서 그 길이를 달리하고 있는데, 그 길이는 평균 30 cm 안팎이다. (도 11, 12)

이와같은 도상은 간다라의 Takht-i-Bahi, Sahri-Bahlol 등지에서 출토된 사위성 신변상의 도상(도 14)<sup>32)</sup>과 거의 흡사한데<sup>33)</sup> 이에 관한 사상적배경에 관해서는 IV장 '라악사원지 塑佛像의 彫刻史的 意義'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처럼 手印이나, 佛衣의 형식에서 전형적인 간다라 영향을 보여주는 거상과는 달리 그 사이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크기 160~180 cm 내외의 등신대 像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화려하게 조상되어 있어 巨像과는 대조를 이룬다. (도 15) 거상들은 모두 불상이지만 이 등신대의 상들은 불상과 보살상이 섞여 있는데, 각 상들의 佛衣는 마치 빗으로 빚은 듯 밀집된 음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이한 모습이다. 일정한 규칙이 없이 이루어진 이 옷주름선은 1군에서는 등신대의 상에서만 간혹 보이지만, 2군에서는 흔히 보여진다. 특히 등신대의 보살상은 특이한 옷주름선의 下衣 위에 둥근 고리로 연결된 허리 띠가 걸쳐져 있고, 상체에는 連珠로 이루어진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식이 대단히 많아 귀족적이고 화려하다.

등신대의 상들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무릎과 무릎사이의 폭이 약 90 cm 이고 앉은 키가 86 cm 인 '선정인' 좌상이다. (도 16)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명상하는 모습의 이 선정인 좌상은 전신을 덮은 通肩의 佛衣가 매우 얇아 裸身으로 표현된 것처럼 보인다.<sup>34)</sup>

제 1군의 거상에 속하는 佛頭는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佛身の 유사점으로 미루어 등

31) 이같은 광배를 지닌 불상을 Gropp은 '성장하는 불상(Sprießende Buddha)'이라고 부른다 (Gropp(1974), p. 212)

32) 사위성 신변상중 이와같은 'Multiplication'의 도상은 3세기말~4세기초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Ju-hyung Rhi(1991), "Gandhāran Images of the "Śrāvastī Miracle": An Iconographic Reassessment", Ph.D diss., Univ. of California, p.187)

33) 이처럼 광배에 화불을 장식한 예는 키질에서도 발견되는데(키질석굴 16帶劍者洞(중국번호 제8굴)과 菩薩天井窟(중국번호 제17굴) 등) 키질의 예는 라악의 경우와 같은 예도 있지만, 佛身 위에까지 여러 존상들은 조직적으로 가득 그려넣고 있는 것도 있어 라악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34) Stein은 이 상에 관해 '이 상은 어떤 종류의 옷도 걸치고 있지 않아 석가가 아닌 보살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다.' 라고 하고 있다. (Stein A. (1907), *Ancient Khotan*, p. 492)

신대의 佛頭와 그 크기만 다를 뿐 얼굴모습의 기본적인 특징은 같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도 18) 즉 계란형의 얼굴에 머리카락은 굴곡이 심한 파상발이며, 눈썹은 얇은 음각선으로 새겨져 있다. 제법 길고 큰 눈의 아래위에는 하얀 스테코가 두텁게 붙어 있고(도 19), 코와 입, 그리고 턱은 비교적 작으며, 뺨에는 살집이 있다. Stein은 이마의 중앙에 붉은색의 백호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sup>35)</sup>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그 밖에 內壁 사방의 각 문 입구에 2구씩 배치되어 있는 수문상(Dvārapāla)이 있다. (도 20) 등신대의 이 상 역시 허리이하의 부분만이 남아있지만 다른 상과는 달리 환조로 표현되어 있다. 이 상들은 제법 긴 장화속에 통이 넓은 바지를 쑤셔 넣고 그 위에 긴 코트가 입혀져 있는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은 상과 상 사이의 벽화에도 보인다. (도 21) 벽화의 인물은 그 용모로 보아 당시 이 지방의 귀족이나 토착왕의 모습을 그려넣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같은 사실에서 이곳 사원지의 상들이 토착문화의 영향을 꽤 받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 ② 2군

다음으로 제 2군 像들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2군의 상들은 1군의 상들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작지만, 역시 160~200 cm 가량의 등신대 상과 60~70 cm 내외의 비교적 작은 상을 교대로 배치하고 있는데(도 22) 제 2군의 상들은 제 1군의 상들과는 달리 佛身에 탄력이 있는 모습이나 그 위를 덮은 얇은 불의, 그리고 그 옷주름표현 등이 인도 굽타 조 마투라불상을 연상케 한다. (도 23, 24)

우선 크기가 약 160~200 cm에 달하는 상들은 통견의 형식과 편단우견의 형식을 띤 두종류로 나뉘는데(도 27) 모두 앞서 보았던 제 1군 상들의 불의 형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편단우견형식이건 통견형식이건 간에 불의주름은 거의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옷자락을 쥐고 있는 왼손 아래로 늘어진 옷의 끝자락이 작게 파도형태를 반복해서 이루는 모습 등은 제 1군의 거상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중 특히 편단우견의 불의형식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가장자리에 꼬불꼬불한 레이스장식이 있는 大衣 아래 입혀진 上衣(uttarasāṅgha 鬱多羅僧)가 대의 밖으로 나와있는 모습으로, 上衣 위에는 격자무늬 속에 점이 찍혀 있는 문양을 새기고 있는 것도 있다. (도 29) 이와 같은 형식은 후술하겠지만 병령사석굴 169호굴의 편단우견 불입상(도 28)에서도 보인다.

2군의 거상들은 옷입은 형식과는 무관하게 크게 2가지 종류의 옷주름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1군의 등신대상과 흡사한 밀집된 음각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 하나는 옷주름을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이다.

먼저 첫번째의 뻣뻣한 등간격의 음각선 옷주름선은 다른 지역의 불 보살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표현으로<sup>36)</sup>(도 29) 이에 대해 Stein은 물속에 비친 석가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하

35) Stein A. (1907), *Ancient Khotan*, p. 492

36) 구마가이 노부오(熊谷宣夫)는 이러한 衣紋을 '流水文'이라 하고, 이같은 衣紋의 표현을 이란전통의 것으로 보았다. (熊谷宣夫(1962), 「西域の美術」, p. 90) 또 권영필교수는 라악사원지의 특징적인 옷주름 표현에 관해 핫타 테페-쇼토르(Tepe-Shotor)승원 사당내 벽면의 물결무늬(流水文)와 상통하는 점을 들어 논한 바 있다. (權寧弼(1987), 「尉遲乙僧畫法の 根源과 擴散」, pp. 106~109)

고 있다.<sup>37)</sup>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같은 옷주름 선의 표현이 이곳 라와사원지의 像에서 애용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하겠다. 어쨌든 뾰뾰한 등간격 옷주름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과 더불어 전신이 마치 가느다란 끈으로 덮여있는 것같은 느낌을 주는 도드라진 옷주름선으로 이루어진 상(도 27)들은 모두 가느다란 허리와 푹 붙거진 허벅지, 어색한 왼손 등의 모습에서 앞서 본 1군의 거상을 제작하였던 조각가와는 명백히 다름을 알 수 있다.

60~70 cm의 비교적 작은 상들은 큰 상과 상 사이에 배치되어 빈 공간을 채워주고 있다. 상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한 형식을 띄고 있는데 두부는 같은 틀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단지 옷과 자세에 있어 부분적인 차이를 보일 뿐이다.(도 24)

2군의 불두는 계란형의 얼굴형에 작은 입과 턱, 살찐 뺨 등의 기본적인 특징은 1군과 동일하지만, 높은 육체에 눈은 귀에 닿을 듯이 길며 뾰족한 코와 선명한 콧망을 표현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도 30) 특히 화려한 머리장식의 보살두(도 31)의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라와의 소불상중에는 나발로 표현된 불상은 하나도 없고 모두 과상발로 표현되어 있으며, 모든 상들은 원래 채색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상의 후미진 곳이나 옷주름의 틈사이 등을 제외하고는 남아있지 않다.

이곳 라와사원지의 부조상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에는 상의 크기가 너무 크고 또 ‘흙’이라는 재료의 특성 때문에 쉽게 부서져 버려 이곳을 발굴한 Stein과 Trinkler 등은 작은 상이나 頭部를 제외하고는 상을 다시 모래 속에 묻을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하고 있으며<sup>38)</sup> 지금까지도 이곳에는 모래가 계속적으로 덮여지고 있다.

## 2. 제작기법

라와사원지의 거대한 부조불상은 사원지가 폐기된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진 두꺼운 모래층이 이 사원지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잘 보호될 수 있었지만, 이 상들을 지탱하던 목재가 사원지밑으로 흐르는 지하수로 인하여 부식되어 버렸기 때문에 발굴과 동시에 상들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sup>39)</sup>

內外壁의 안과 밖에 늘어서 있는 거대한 상들을 어떤 방법으로 벽과 연결시켰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벽면의 형태로 대강의 짐작은 가능하다. 즉 신체 부분은 고부조가 아니기 때문에 벽에 재료를 직접 붙여가면서 형태를 만든것 같고, 頭部는 따로 제작한 후 목재심을 사용하여 身部와 연결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0)</sup> 이 때 頭部는 거의 환조에 가까울 뿐만아니라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단지 두부와 신부를 연결하는 목재만으로는 신부가 이를 지탱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따라서 두부는 뒷벽과 연결시켰을 것으로 생각

37) Stein A. (1907), *Ancient Khotan*, pp. 490~491

38) Stein A. (1907), *Ancient Khotan*, pp. 501~502

39) Stein A. (1907), *Ancient Khotan*, P. 487

40) 라와사원지와 미란사원지에서 발견된 佛頭 안에서 대부분 썩은 나무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은 이를 입증해 준다 하겠다.

된다.<sup>41)</sup>(도 22)그보다 작은 등신대상의 경우는 단지 頭部와 身部 만을 목재로 연결하여 뒷벽에 부착시켰던 것으로 보이며 뒷벽과 목재로 연결하였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조상을 만드는 기법은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 변한다. 다시말하면 나무나 짚등을 구하기가 비교적 쉬운 돈황지역 등의 소상은 자연의 원목이나 짚등을 사용하여<sup>42)</sup>심으로 사용하고, 쿵투라(Kumtura) 등의 지역과 같이 돌을 구하기 어렵지 않은 지역에서는 커다란 돌을 대충 다듬어서 심으로 사용하지만<sup>43)</sup>서역남로의 여러지역 즉 미란, 호탄의 라왁 등지 처럼 돌이나 목재가 귀한 지역에서는 반죽한 흙을 굳혀서 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芯)이 마련되고 난 후에는 그 위에 살을 입힐 塑土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 소토는 강바닥에 침전되어 있던 泥土를 기본으로 하며 좀 더 점성을 강화시키고자 할 때는 면, 모, 마류 혹은 동물의 털이나 식물의 섬유질, 지푸라기, 톱밥을 섞거나<sup>44)</sup> 혹은 석회(石末) 등을 섞어 부서지는 것을 막는다. 이처럼 살을 붙이면서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고 난 후에는 표면에 수분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고를 얇게 입히고 끝으로 채택을 하여 상을 완성한다.<sup>45)</sup>

일반적으로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소조상이 만들어지는데 이곳 라왁사원지의 소조상들 역시 점토를 굳혀서 심으로 하고 그 위에 塑土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를 만든 후 석고를 얇게 입혀 마무리를 하였다.(도 39-2)

이 과정에서 커다란 상의 경우는 작은 상처럼 하나의 틀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커다란 윤곽 부분은 대충 빚어 만들고 정교함을 요하는 부분 등은 부분적으로 틀을 사용했던 것 같다.<sup>46)</sup>(도 35) 그렇기 때문에 巨像들은 모두 같은 크기에 같은 형태이면서도 부분적인 차이를 보인다. 아마도 아주 숙달된 솜씨를 가진 조각가에 의해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빚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작은 상의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틀을 사용하여 찍어낸 것으로 보여지며 거상과 마찬가지로 따로 굽지는 않았고 단지 햇볕에 말리는 건조식으로 제작되었다. 우선 거상들을 먼저 제작하여 배치한 후 작은 상들은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

2군 작은 상의 頭部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따로 제작하여 연결시켰는데 이 때 두부의 얼굴 부분은 대부분 틀(型)에 의해 찍어낸 후 단지 머리카락이나 머리장식 등만을 따로 표현해 넣으로써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41) 현재 Rawak사원지의 周壁 들레에는 巨像의 머리부분에 해당하는 위치에 수평으로 목재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을 뿐만아니라 상 자체에도 두부 뒷면에 方形의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안에 썩은 목재가 남아있어 추정이 가능하다.

42) 本間紀男(1980), 「敦煌塑像の技法」, 『MUSEUM』 351, p. 351 ; 孫紀元, 「敦煌の彩塑とその製作」, 『敦煌莫高窟 3』, 平凡社, pp. 208~215

43) 新疆ウイグル自治區 文物管理委員會·庫車縣文物保管所(1985), 『中國石窟·クムトラ石窟』, 東京, 平凡社, 圖 175

44) 서역남로 미란유적지의 소불상에서는 식물의 섬유를 대다수 섞은 것을 볼 수 있다.(拙稿(1992), 「西域南路 미란(Miran 米蘭)塑佛像의 研究」(『佛教美術』 11집) 圖 9~11 참조)

45) 이러한 경우 순수하게 석고로만 만들어진 상과 구분이 어려워지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석고상(stucco)이라 할 수 있다.

46) 현재 호탄시내의 호탄박물관에는 라왁사원지 및 호탄부근 유적지에서 출토된 다양한 형태의 틀(型, 范)이 진열되어 있어 이를 입증해 준다.

像은 중요도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하고 있으며, 가장 의미가 적은 상, 다시말하면 본존에 종속되는 의미를 지닌 상들 혹은 토착의 왕이나 귀족들을 표현할 경우에는 벽화로 대신하고 있다. 조각과 벽화를 불문하고 内外壁에 늘어서 있는 모든 상들은 채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그 종교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였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같은 형식과 기법으로 제작된 라와사원지의 소불상들은 간다라 탁실라(Taxila)<sup>47)</sup>의 자울리안(Jauliān), 모라-모라두(Mohrā-Morādu), 다르마라지카(Dhrmarājikā) 등지, 하다(Hadda) 테페-칼란(Tepe-Kalan)<sup>48)</sup> 등지의 소불상 및 같은 서역남로의 미란(Miran 米蘭) 그리고 중국 병령사석굴 169 호굴 西秦 建弘年間(420~427)의 상들과 형식적으로 일치하는데 그 일치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9)</sup>

우선 탑의 기단부나 탑을 둘러싼 壁의 내외벽면에 비슷한 크기의 상들이 병렬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 37-1, 37-2, 37-3) 이처럼 불상은 탑의 기단에 혹은 탑을 둘러싼 周壁에 병렬로 배치하는 경우는 서북인도나 서역북로의 톰숙 등을 제외한 이외의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 이들 병렬상들은 환조가 아니라 모두 벽에 붙인 부조상이지만,<sup>50)</sup> 頭部는 거의 환조에 가깝다. (도 38-1, 38-2) 다음으로는 제작방법이다. 대부분이 점토를 굳혀 말려 심으로 사용하였고,<sup>51)</sup> 머리는 항상 따로 제작하여 결합하였는데 이 때 연결재료로 목재를 사용하고 있다. 재료사용의 방법에 있어서도 두부를 제작할 때 몸체보다 짙이나 동물의 털 등을 더 많이 섞어 견고하게 제작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塑造佛들은 頭部가 훨씬 많다. 마지막으로 얼굴의 기본적 특징의 일치인데, 계란형의 얼굴에 뺨에는 살이 많고, 눈은 제법 크고 길며, 코, 입, 턱은 비교적 작지만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 (도 39-1~4)

#### IV. 라와사원지 塑佛像의 樣式的 特徵과 編年

앞서 제 2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Taxila 의 Jauliān, Mohrā-Morādu, Dhrmarājikā 등지의 소조상들, 그리고 Hadda 의 Tepe-Kalan, Tepe-Shotor 등지의 상들, 서역남로의 라와, 미란 그리고 중국 하서지역의 병령사석굴 169 호굴의 西秦 建弘年間 불상들과 기본적인 형식이 일치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47) Marshall J.(1960), *A Guide to Taxila*, Sani Communications, Pakistan, pp.102~123,156~161,164~170 ; Mashall J.(1951), *Taxila*, vol. I, Cambridge Univ. Press, pp.371~387

48) ジョセフ・アッカ(1933), 「ハッダの佛彫刻」, 『美術研究 15』, pp.82~85 ; Gaulier, S. et others(1976), *Buddhism in Afghanistan & Central Asia*, vol 1, Leiden, pp.5,16

49) 이와같은 일치점에 관해서는 拙稿(1992), pp.154~160 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는데 미란소불상에 관한 논고가 불좌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었다면 라와사원지의 경우는 불입상을 통해 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50) 이는 둔황을 위시한 西域北路의 소조상들이 대부분 환조로 제작되어 있는 것과 비교된다.

51) 서역북로의 상들의 경우가 돌 혹은 짚을 이용하여 芯으로 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하겠다.

이같은 사실은 이곳 라악사원지와 간다라, 아프가니스탄 등지와 밀접한 관련을 시사해 주는데, 이 밖에도 앞서 보았던 사원지의 기본적인 형태와 특이한 형태의 광배(도 9, 10)라든지 어깨에 화염을 표현한 炎肩佛(도 13)의 도상이 이곳 사원지에서 보여진다는 점 등은 이를 뒷받침 해준다.

본 장에서는 이같은 전제아래 라악사원지 소불상들과 앞서든 지역의 소불상과를 비교하면서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강의 편년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sup>52)</sup> 물론 본 연구의 목적이 이곳 라악사원지 소불상의 편년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라악사원지의 소불상은 그 크기가 방대하고, 또 숫자도 많기 때문에 한시기에 한꺼번에 조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라악사원지 소불상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1군과 2군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군의 불 보살상의 경우 '巨像'들은 모두 전형적인 간다라양식을 모델로 하여 제작되었는데(도 8), 이는 간다라의 라호르(Lahore), 페샤와르(Peshawar) 등지의 석조불상(도 8)과의 비교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즉 건장한 체구 위의 제법 두터운 佛衣의 표현 등은 편암으로 제작된 간다라불상을 단지 '흙'이라는 재료로 다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같이 전형적인 간다라불상을 모델로 한 1군 거상을 탁실라, 핫다지역의 같은 형식적 특징을 지닌 상들과 비교하여 보면 후자의 경우 전자에 비해 불의가 훨씬 얇아졌을 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처럼 1군의 거상이 전형적인 간다라불상과 조형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1군 등신대상(도 15)의 경우는 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인 특징은 거상과 일치하지만 보살상에서 보이는 귀족적이고 화려한 장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sup>53)</sup> 뿐만아니라 도 16에서 보이는 등신대의 선정인 좌상은 다른 유적지에서는 드물게 보여지는 것으로, 마치 나신으로 표현된 것처럼 매우 얇은 通肩 불의와 명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은 서역북로의 툼슈크(Tumshuk)상(도 17)과 비견된다.<sup>54)</sup> 약 5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툼슈크의 禪定印 佛像이 얇은 佛衣를 통해 비교적 건장한 불신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이 상의 경우는 전혀 양감이 느껴지지 않는 날씬한 모습이다. 툼슈크의 상이 목조이고 이 상이 소조상이라는 점을

52) 이곳 라악사원지를 발굴한 Stein은 '이곳에서 출토된 五銖錢과 조각들의 양식, 유적지의 건축적인 평면과 재료에 의하여 이 사원지가 3~7세기사이 언제인가 폐기되어졌다는 것 이상은 알 수 없다'라고 적고 있다. (Stein Aurel(1907), *Ancient Khotan*, p.501) 또 Trinkler는 '이곳 라악사원지의 상들이(Trinkler가 발굴한 부분은 대부분이 필자가 분류한 2군의 상에 속한다) 아직 간다라말기의 아름다움이 남아있지만, 반달모양의 눈썹, 도톰한 턱 등의 모습에서 중국 隋나라 양식이 보이며, 따라서 연대는 6세기후반 또는 7세기경으로 추측된다'라고 하고 있다. (Gerd Gropp(1974), p. 209)

53) 이같은 화려한 팔찌, 목걸이 등의 연주문 혹은 보관 등의 표현에서는 이란미술의 특징이 보여진다. 이러한 이란적 요소는 파미르 및 Alai 계곡사이를 넘어 카쉬가르(喀什噶爾, Kashgar) 야르칸드(葉爾羌, Yarkand)로 이르러 이곳 호탄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別稿를 마련하고자 한다.

54) 秋山光和(1953), 「ペリオ調査團の中央アジア旅程とその考古學的成果(上)」, 『佛敎藝術』 19, pp. 89~93

상기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명백해진다.

이같은 양식적 특징을 지닌 1군 상들에 비하여 2군의 조각들(도 24, 27)은 불의 기본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간다라조각과 관련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불의 아래 신체의 형태를 강조하는 데 있다. 즉 극히 얇게 만들어진 불의는 몸에 밀착되어 신체가 그대로 들어날 뿐만 아니라 육신 자체에 있어서도 부풀어 오른 모습이며, 불의에 표현된 뻣뻣한 밀집 음각선이나 균등한 용기와 폭을 가진 돌출의 옷주름선은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즉 좌우대칭으로 U자형을 이루며 내려오던 활도양의 주름이 복부 아래부분에서부터 좌우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발끝까지 내려 온다. 그리고 정확히 양 허리선에서 수직으로 내리뻗은 주름이 발까지 이어지는 특이한 옷주름선을 지닌다. 얇은 불의가 전신을 마치 끈으로 감아놓은 듯한 가느다란 용기선 주름으로 덮여있는 경우는 물론 굽타조 마투라 불상(도 23)에서 흔히 찾을 수 있으나,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은 특이한 하체의 옷주름 형태는 굽타조 마투라불상과는 다른 모습이며, 동투르키스탄의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뿐만아니라 굽타조 마투라의 불상들이 유려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반해 라와사원지의 불상들은 불신의 탄력감은 있으면서도 어딘지 딱딱하고 경직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sup>55)</sup>

이같은 라와사원지 1군, 2군 소불상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이 뻣뻣하고 생경한 느낌은 바미얀(Bāmiyān) 西大佛(도 25)이나 병령사석굴상(도 26)과 비견되는데, 이들 두 지역의 상의 경우는 특히 2군 상과 옷주름형식까지도 거의 일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흡사한 경우가 바미얀 西大佛(도 25)로 상체의 주름형태는 차이를 보이지만 하체주름의 형태는 거의 비슷하다. 또 병령사 제 169굴 북벽의 7호 불입상 및 남벽 22호 삼존불상 중 본존불입상<sup>56)</sup>과도 비견되는데<sup>57)</sup>(도 26, 28)이상의 경우 라와사원지 2군 상이 복부주위에서부터 좁은 호선을 그리며 발부근까지 이어진 것과는 달리 허벅지까지 5~6단정도 내려오다가 그쳤고, 또 허리부근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려지는 선이 없는 등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인 특징은 일치한다. 특히 양 손아래로 내려진 주름과 왼쪽 어깨로 넘어간 옷자락이 마치 레이스처럼 잔물결을 이루는 모습이라든가 우견편단의 경우 大衣 아래 입은 上衣가 대의 밖으로 보이며 그 위에 무늬를 새기고 있는 모습 등은 거의 흡사하다. (도 29)

이에 반해 간다라 Taxila의 Mohrā-Morādu, Hadda의 Tepe-Kalan 등지의 불입상

55) 라와사원지의 소불상들이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해 Gropp은 '인도미술의 특징중에 하나는 불상들이 여러 동작을 취하거나 변화가 많은 것인데, 라와의 벽을 장식한 예술가는 인도의 정통예술을 따르지 않고 페르시아-서남아시아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움직임이 없는 거의 같은 상들로만 배열된 예는 페르세폴리스궁에서 볼 수 있으며 정면을 향한 상들이 길게 나열된 것은 파르티아예술의 특징이다. 예를들면 Shimbar의 암각화, Tang-e-sarwak 그리고 Izeh Malamir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Gerd Gropp(1974), p.210)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

56) 甘肅省文物工作隊·炳靈寺文物保管所編(1986), 『中國石窟·炳靈寺石窟』, 東京, 平凡社, 圖 34~35, 47, 49 참조

57) 필자가 2군으로 분류한 라와사원지 소불상과 병령사 169호굴의 東壁 제7불감에 있는 像의 상통하는 점에 관해서는 이미 김리나교수가 언급한 바 있다. (金理那(1989), 「新羅 甘山寺如來式 佛像의 衣紋과 日本佛像과의 關係」, 『韓國古代佛教彫刻史의 研究』, 一潮閣, p.213)

들은 같은 병렬형식이면서도 다채로운 포즈와 감미롭고 우아한 모습, 다소 늘어진 옷주름의 표현 등에서 이곳 라악사원지의 1, 2군 소불상들이 위 지역의 상보다 이른시기에 조성되어진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얼굴의 표현에서는 서역북로의 툼슈<sup>58)</sup>, 키질, 쇼르축의 쉬크친(Shikchin) F 4사지 등지의 상과 연계가 엇보인다. 특히 매우 화려한 머리장식이나 귀족적인 치장, 약간 치켜뜬 눈, 눈, 코, 입 등이 중앙에 물려있는 보살두의 모습은 툼슈(Tumshuk, Toqquez-Sarai) I小祠堂에서 출토된 약 5세기경의 소조보살두(도 32) 및 키질의 보살두<sup>59)</sup>(도 33)와 흡사한 모습이다. 라악사원지 제 2군 소불상의 이러한 경향은 호탄강을 통한 북로의 여러 지역 특히 툼슈<sup>60)</sup>, 키질 등지와 비교적 빈번한 교류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 라악사원지의 1, 2군 소불상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탑을 둘러싼 사원지의 배치형식이 나, 상을 배치한 방법이나, 제작기법 등의 면에서 기본적으로는 간다라의 형식을 따르고 있음은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같은 기본적 특징 위에 1군의 거상은 간다라예술 최성기의 전형적인 간다라불상을 모델로 하여 제작되었으며 그와 같은 순수성은 1군의 거상 모든 작품에 나타난다. 2군의 경우는 1군의 양식을 계승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간다라불에 비하여 육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팽팽한 신체위에 얇은 불의가 몸에 밀착되어 있는 모습에서 굽타조 마투라불상(도 23)의 세부기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서술하였지만 신체의 생경함이라든지 특이한 옷주름선의 흐름 등은 전형적인 굽타조 마투라불상의 옷주름선과는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바미얀대불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라악사원지의 이와같은 특징은 아마도 1군의 상에서 보여지는 간다라양식과 이곳 호탄 토착예술의 양식적 기반위에 약 4세기경부터 시작된 간다라불의 인도화의 영향<sup>61)</sup>, 북로의 툼슈, 키질, 콤투라 등과의 교류로 인해 얻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은 양식적 특징을 지닌 라악사원지의 조성연대를 밝혀내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이곳 사원지의 조성연대를 알려주는 유일한 유물은 봉헌물로써 像의 기단위에 놓여졌던 중국의 五銖錢<sup>62)</sup>인데<sup>63)</sup> 이 곳 라악사원지에서는 오수전보다 시기가 늦은 화폐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sup>64)</sup>

58) 梅村(1990), 「疏勒考古九十年」, 『文物天地』 1990-1, pp. 23~27 ; 梅村(1990), 「疏勒考古九十年(續)」, 『文物天地』 1990-2, pp. 24~28

59) 베를린印度美術館所藏 독일투르판探險隊蒐集品 『실크로드 美術展』(1991), 국립중앙박물관, 圖3 참조

60) 툼슈에서 출토된 앰포라(amphora)형의 壺에 나타난 장식문양과 호탄출토 壺의 장식문양의 거의 흡사하다는 것 뿐만아니라, 툼슈출토의 브라미문자의 문서가 언어학적으로 호탄어가 변화한 것이라는 사실에서도 툼슈와 이곳 호탄이 꽤 밀접한 관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61) 이같은 인도적 요소는 간다라 및 五河(Punjab)에서 캐쉬미르를 지나 파미르를 넘어 오른쪽으로 우회하는 길을 따라 호탄에 이르렀을 것이다.

62) 五銖錢은 漢武帝 元狩4年(B.C. 119)에 주조한 것이 최초이며, 前漢末 平帝 元始年間까지 280억 매이상 발행되었다. 이 오수전은 중국의 古錢 중에 그 생명이 가장 길어 위진남북조를 거쳐 唐 武德四年(621)에 폐지되었다.(彭信威(1988), 『中國貨幣史』, 上海人民出版社, p. 225)

63) R. 11, 28, 64의 像이 놓여져 있는 대좌주변과 周壁내의 남쪽에 위치한 작은 탑의 기단에서 오수전이 발견되었다.(Stein(1907), p. 493, pp. 500~501)

64) Stein(1907), p. 501

이 사원지는 오수전이 통용되던 시기에 존재하였고, 중국에서 오수전이 다른 화폐로 대체된 시기에는 이미 이 사원지는 폐쇄되었음을 알려준다. 이 밖에 호탄부근의 다른 유적지에서는 중국-카로쉬티동전이 다수 발견되지만<sup>65)</sup> 라악사원지에서는 아직까지 한점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sup>66)</sup> 중국-카로쉬티동전이 널리 사용되는 기간인 기원후 1세기경에는 이곳 라악사원지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이처럼 현재까지 발굴된 유물을 통하여서는 중국-카로쉬티동전도 한 점도 발견되고 있지 않고, 또 五銖錢보다 시기가 늦은 화폐도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이곳 라악사원지는 그렇게 오랜기간 성립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다시말하면 축조된 후 오랜기간 유지되지 않고 곧 문을 닫았거나, 완전히 축조되기 전에 어떤 이유로 인해 폐기되어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라악사원지에는 탑이나 소불상등에서 약간의 탈락이 보이지만, 이를 보수한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도<sup>67)</sup>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하겠다.

뿐만아니라 이곳 라악사원지에서는 호탄국내 7~8세기의 여러 유적지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多臂의 상<sup>68)</sup>이 한점도 발견되고 있지 않은 점에서도 최소한 이곳 사원지가 唐 이전의 시기에 조성되었고 소멸되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고찰을 통해본 라악사원지 1, 2군 소불상의 대강의 편년에 관해 살펴보면, 이곳 라악사원지의 1군, 2군의 상들은 앞서 들었던 몇가지 이유로 미루어 5세기후반경에 폐기된 탁실라 사원지의 부조소불상들 보다는 시기적으로 앞섬에 틀림없다고 보여지고, 西秦 建弘年間의 병령사 제 169 굴의 상과 비교하여서는 1군은 그보다 앞서며, 2군은 그보다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결국 간다라예술 최성기의 작품을 모델로 하고 있는 1군 상의 경우는 그 제작연대가 4세기중엽에서 5세기초 사이에, 2군은 간다라양식의 순수성을 남기고 있기는 하지만 형식화가 진행되었고 또 신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도 1군보다는 그 시기가 늦은 5세기초부터 5세기후반에 이르는 기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생각된다. 이 시기는 호탄의 불교전성시기로 미루어 볼 때<sup>69)</sup> 더욱 타당성을 지닌다 할 수 있겠다.

65) 이처럼 호탄유역에서는 중국-카로쉬티동전이 다수 발견되기 때문에 이 동전이 호탄국의 공식화폐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쿠산왕국에서 주조한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榎一雄(1960), 「所謂シナ=カロシュティ錢について」, 『東洋學報』42:3, pp.1~56 ; Enoki Kazuo(1965), "On the so-called Sino-Kharosthi coins", *East & West*, pp.231~276)

66) Stein(1907), p. 501

67)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면 라악사원지의 외벽이 남서쪽의 한쪽 모서리에만 그 유구가 남아있는 것도 나머지의 부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보기 보다는 원래 축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8) Joanna Williams(1973), pp.109~154 ; 池田百合子(1980), pp.58~74

69) 호탄불교의 유입시기에 관해서는 티벳본 『于闐史』에 의하면 '于闐王 瞿薩旦那(地乳, sa-na)가 19세때 건국하였고, 그 때는 불멸후 234년이 지난 때였다. 건국 후 165년에 국왕 尉遲勝(Vijaya Sambhava)이 즉위하였고, 治世5년에 불법이 흥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로 미루어 보면 대략 기원전 76년경에는 이미 호탄에 불교가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Rockhill, W. W. (1892), *The Life of the Buddha and the Early History of His Order*, London:Kegan Paul, Trench, Trübner & Co. pp.237~238 ; 寺本婉雅譯(1974), 『于闐國佛敎史の研究』, 國書刊行會, p.22) 이처럼 전설에서 전해지는 기원전 1세기라는 불교유입시기는 중국에 불교가 전해진 시기와 비교하여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漢書』 및 『後漢書』의 西域傳 어디에도 호

끝으로 이같은 연대추정이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자료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그것은 현장의 『大唐西域記』瞿薩旦那國條의 媯摩城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玄奘『大唐西域記』卷第十二 瞿薩旦那國

媯摩城有彫檀立佛像… ① 凡有疾病 隨其痛處 金箔貼像 即時痊復 虛心請願 多亦遂求 聞之士俗曰 此像 昔佛在世 憍賞彌國 鄒陀衍那王所作也 佛法世後 自彼凌空 ② 至此國北 曷勞落迦城中 初到此城人安樂富饒… 第七日夜宵分之後 ③ 雨沙土滿城中 其人從孔道出 ④ 東趣此國止媯摩城… ⑤ 今曷勞落迦城爲大堆阜 諸國君王異方豪右 多欲發掘取其寶物 ⑥ 適至其側 猛風暴發 煙雲四合 道路迷失

우선 이를 살펴보면 ① 비마성에는 ‘아픈곳에 금박을 붙이면 즉시 낫는’ 立佛像이 있다 ② 호탄국의 북쪽에는 갈로라가성이 있는데 ③ 그 성은 사토로 매몰되었고, ④ 그 성의 동쪽에는 비마성이 있다. ⑤ 지금 갈로라가성은 커다란 모래언덕으로 변해 있으며, ⑥ 접근하면 맹풍과 연운으로 길을 잃게 된다고 하고 있다.<sup>70)</sup>

현장기록의 정확성은 이곳을 발굴한 사람이라면 모두 인정하는 바로 일단 이 기록에서 말하는 ‘갈로라가’가 ‘라악사원지’라는 전제 아래 다시 살펴보면, ① 비마성과 멀지 않은 라악사원지에도 1군상의 무릎에 금박을 붙인 흔적이 있고,<sup>71)</sup> ② 호탄국의 북쪽에 라악사원지가 있으며(도 1 참조) ③ 라악사원지는 온통 모래로 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④ 또 라악사원지의 동편에는 비마성(Uzun-Tati)<sup>72)</sup>이 위치해 있으며(도 1 참조) ⑤ 현재 라악사원지는 커다란 모래

탄의 불교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재고를 요한다. 어쨌든 3세기가 되면 호탄불교는 그 존재가 확실해 지는데 중국승 朱土行이 260년 호탄에서 많은 경전을 가져간다는 기록, 5세기초 支法領이 이곳에서 화엄경의 범본을 가져갔다는 기록, 그리고 5세기초 이곳을 방문하였던 法顯의 기록 등으로 미루어 호탄에 정확히 언제 불교가 유입되었던 간에, 호탄의 불교는 2~3세기초가 되면 확립되었고, 4~5세기경이 되면 그 전성기에 다다르게 된다. 호탄의 불교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羽溪了諦(1913), 『于闐國の佛教(1)-(2)』, 『藝文』 4:1-2, pp.105-123, pp.76-83 ; 羽溪了諦(1928), 『西域之佛教』, 興教書院 ; 境野黃洋(1927), 『于闐及龜茲之佛教』, 『支那佛教史講話 1』, 共立社, pp.102~140 ; 境野黃洋(1935), 『于闐及び龜茲の佛教』, 『支那佛教精史』 境野黃洋博士遺稿刊行會, pp.251~302 ; 寺本婉雅譯(1974), 『于闐國佛教史の研究』 ; 東初(1979), 『于闐國之佛教』, 『西域佛教研究』(張曼濤主編), 現代佛教學術叢刊 80, 大乘文化出版社, pp.337~346 ; 小笠原宣秀·小田義久(1980), 『要說西域佛教史』, 百華苑, pp.55~61 ; B.N.Puri(1987), 『Buddhism in Central Asia, Motilal Banarsidass』, pp.52~62 ; R.E.Emmerick(1992), 『中亞의 佛教』, 『西域研究』 1992年 第2期, pp.58~62 ;

70) 玄奘著, 李義林校注(1990), 『大唐西域記校注』, 中央交通史籍叢刊, 中華書局, pp.1026~1027 ; 慧立·彥棕著, 長澤和俊譯(1965), 『玄奘法師西域紀行』, 桃源社, pp.186~188 ; 玄奘著, 權德周譯(1983), 『大唐西域記』, 日月書閣, pp.364~365

71) 스타인이 발굴한 91구의 상 가운데 R.29에 해당하는 像의 양 무릎에는 여러개의 금박의 흔적이 보이는데 가장 큰 것은 한변이 2.5cm정도 크기이다. (Stein(1907), p.496)

72) 이곳 비마성이 지금의 어디인가에 관하여서도 많은 이론이 있지만 스타인이 Uzun-Tati로 비정한 이래 Uzun-Tati가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Stein(1903), pp.439~440 ; Stein(1907), pp.285~286) 그 밖에 玄奘著, 李義林校注(1990), 『大唐西域記校注』, pp.1028~1029 ; 周連寬著(1984), 『大唐西域記史地研究叢稿』 中華書局, pp.260~261 ; 孫修身(1981), 『于闐媯摩城, 坎城兩地考』, 『西北史地』 1981年 第2期 참조

언덕의 형상을 띄고 있고<sup>73)</sup>⑥ 또 이곳 라왁사원지를 발굴하였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래바람이 너무 심하여 접근하기 무척 어려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조사단이 접근하고자 하였을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정황만으로도 ‘갈로락가성’은 라왁사원지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 때의 ‘曷勞落迦’는 ‘勞落迦(rauraka, roruka)<sup>74)</sup>로 이는 서북인도에서 만들어진 모래에 묻혀 버린 매몰 도시’에 관한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전설은 매몰유지가 많은 이곳 사막의 사람들에게 위화감 없이 도입되었고, 각지에서 rauraka, roraka 등의 지명을 남겼다.<sup>75)</sup> 따라서 Rawak이라는 이곳의 명칭도 어원상 라우라카에서 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아니라 현재 이곳 라왁의 소불상들이 발굴당시 마모가 심하게 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봉헌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국의 五銖錢이 像의 대좌 부근에서 그대로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서도 이 사원지는 매몰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상황들은 이곳 라왁사원지가 현장이 말하는 라우라카성일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이같은 추정이 타당성 폐기연대를 명확히 해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덧붙일 것은 사진 9, 10에서 보았던 특이한 형태의 광배에 부착되어 있던 화불이나 기타 부조상들이 탈락되자 이 파편들을 요소요소에 경건하게 모셔놓은 모습에서(도 16) 이들 부조장식은 이 사원지가 폐기되기 이전부터 탈락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상을 보수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탈락은 시작되었지만 보수는 시작되지 않은 시기에 매몰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현장이 이 부근을 방문하였던 시기인 7세기초에서부터 거꾸로 모래가 사원지 전체를 덮어 버릴만한 시간, 그리고 상이 만들어진 후 탈락되기 시작하는 기간을 빼 나간다면 라왁사원지 부조상의 대강의 조성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를 통해 추산된 연대는 필자가 라왁사원지 소조상의 양식적 특징을 통하여 추정해 본 대략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본다.

## V. 라왁사원지 塑佛像의 意義

본 장에서는 이와같은 라왁사원지 소불상이 갖는 의의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73) 스타인은 이곳 라왁사원지를 처음 발견하였을 당시 모래더미였고(Stein(1903), p.449 ; Stein(1907), p.483), 발굴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모래가 날라들어 발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Stein(1903), pp.451~452 ; Stein(1907), p.488)

74) ‘曷’은 한자음으로, 범어에서 단어의 첫 글자로 ‘r’이 나올 때 ‘l’과 구분하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曷勞’는 ‘ro’ 혹은 ‘rau’를 음사한 것이고, ‘落迦’는 ‘ruka’ ‘raka’를 음사한 것이다.(羽溪了諦(1928), 『中亞佛敎의特徵』, 『日本佛敎學協會年報』 1號, pp.102~103 ; 玄奘著, 李羨林校注(1990), 『大唐西域記校注』, p.1029)

75) 長澤和俊(1973), 『拘彌國考』, 『史觀』, 第100冊, p.65

첫째로 이곳 라악사원지 소불상은 매우 치밀한 설계 아래 제작되었을 뿐만아니라 그 숫자도 대단히 많아 동투르크스탄의 어느 지역의 예보다도 조각적 특징을 살펴보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곳 라악사원지는 Stein 이 발굴한 면적과 당시 노출된 불상수의 비율로 그 수를 추정하여 보면 내부벽의 안과 밖에만 약 500여구가 넘는다. 내부벽보다 그 표면적이 훨씬 넓은 외부벽의 부조상까지 모두 합친다면 그 숫자의 두배이상으로 이곳 라악 부조불상은 질적인 수준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 숫자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뿐만아니라 매몰되기 직전까지 거의 파괴를 입지 않았을 뿐더러 조성되고 난 후 비교적 오랜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매몰되었기 때문에 마모가 심하거나 보수 흔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라악사원지의 이같은 특징은 이곳에 병렬되어 있는 수많은 부조불상들의 형식 및 양식적인 특징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며 따라서 이곳 라악탑의 부조불상이 가지는 조각사적인 의의는 지대한 것이다.

또한 이처럼 많은 불상을 한꺼번에 만들면서 작은 불상 하나라도 아무렇게나 배치하지 않고 각 불·보살상의 시선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세심한 곳까지 배려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이곳 라악사원지가 매우 치밀한 계획 아래에 종합적으로 설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거의 3m에 가까운 거대한 상과 등신대의 불·보살상들이 화려하게 채색되어 병렬로 탑을 둘러싼 內外壁의 안팎에 늘어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 장엄함이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번째로 이곳 라악사원지 부조상들이 주는 종교적인 의미이다. 호탄불교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려진 것은 魏의 甘露 2年(260) 朱士行<sup>76)</sup>의 활동에 의해서 이다.<sup>77)</sup> 주사행이 호탄에 갔던 시대, 호탄의 소송은 일정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sup>78)</sup> 이 이후부터 이곳 호탄의 불교는 서서히 대승으로 전개되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호탄에서 화엄불전이 초래되었던 것은 5세기초 支法領<sup>79)</sup>에 의한 『六十卷華嚴』인데<sup>80)</sup> 이 대승화엄부가 초래

76) 朱士行(?~?)은 潁川(河南省 許昌)사람으로 출가 후 낙양에서 『道行般若經』연구에 힘썼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260년(甘露 5) 般若經의 原典을 구하기 위해 장안을 출발하여 호탄에 갔다. 거기서 얻은 梵文원전 90장은 제자 不如檀에 의해 282년(太康 3)에 무사히 西晉의 낙양으로 옮겨져 291년(元康 1) 無羅叉, 竺叔蘭에 의해 『放光般若經』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주사행은 호탄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80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シルクロード往來人物辭典』(1989), 同朋舍, p. 82)

77) 桑山正達(1985), 『パ-ミヤ-ン大佛成立にかかわるふたつの道』, 『東方學報』 京都 57, pp. 111~112

78) 당시 호탄의 소송불교도들이 중국의 사문들이 바라문서를 가지고 올바른 경전을 어찌럽히고 있음을 왕에게 고하며, 이를 금하지 않는다면 대법이 중국 땅에서 사람들을 귀멸고 눈멀게 할 것이니 중국 사문들이 경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금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出三藏記集』卷十三(大正藏五五卷九七項上中) '…于闐 小乘學衆 遂以白王云 漢地沙門欲以婆羅門書惑亂正典王爲地主若不禁之將斷大法墮盲漢地 王之咎也 王即不聽齋經 士行憤慨乃 求燒經爲証 王欲試驗 乃積薪殿庭以火燔之 士行臨階而誓曰 若大法應流漢地誓 經當不燒 若其無應命也 如何 言已投經 火即爲滅 不損一字皮牒如故 大眾駭服稱其神感' )

79) 支法領은 강남에 佛典이 갖추어져 있지 못함을 애석해 하던 廬山の 慧遠에 의해 392년(太元 17)에 法淨과 함께 서역에 파견되어 408년(義熙 4)에 다수의 범본을 가져왔다. 그 중에도 그가 호탄에서 가져왔던 『華嚴經』 60권본의 범본은 418년(義熙 14)에 佛馱跋陀羅에 의해 建康(南京)의 道場寺에서 번역되었다. (『シルクロード往來人物辭典』(1989), p. 84)

된 이 후 중국과 호탄의 불교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sup>81)</sup> 이를 통하여 호탄의 불교는 3세기까지는 소승이 우세하였고 3세기중후반에 대승승이 병행되었으며, 법현이 이곳을 방문하였던 시기인 5세기초는 호탄불교의 전성기로 대승사상이 풍미하였으며<sup>82)</sup> 이러한 경향은 현상이 이곳 호탄을 방문하였던 시기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83)</sup> 어쨌든 4세기말~5세기초에 이미 이곳 호탄에는 대승불교, 특히 화엄불교사상이 성황을 이루었고, 이를 중국에 직접 전파하여 중국 화엄종을 성립하게 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불교의 중심을 이루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라악사원지에 나타나는 소불상들, 그 중에서도 특히 化佛들이 불신에서 마치 빛이 솟아나는 것처럼 배치되어 있는 특이한 도상의 광배를 가진 불상<sup>84)</sup>(도 9, 10)을 화엄사상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이와같은 특이한 형태의 광배도상이 앞서도 서술하였듯이 '간다라의 사위성 신변의 도상을 차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곳 라악사원지 소불상들의 양식적 특징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된다.<sup>85)</sup> 그럼 과연 이 상을 차용하였을 당시 과연 이 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일까?

물론 서역의 불교가 교학적인 면보다는 시각적 표현을 먼저 받아들이는 경향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소 강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도상을 차용하였을 당시 별다른 의미가

80) 현존하는 한역화엄경은 3종류로 40권본, 60권본, 80권본이 그것이다. 40권본은 완역본이 아니라 入法界品만 번역한 것이고, 완역본은 60권본과 80권본 두종류이다. 60권본은 慧遠이 보낸 法禪과 支法領 등이 이곳 호탄에서 가져온 범본 화엄경을 東晉의 佛馱跋陀羅(Buddhabhadra, 북진 축승 359~429)가 번역(418~420)하여 34品 60권으로 정리한 것인데(佛馱跋陀羅傳에 관해서는 『梁高僧傳』卷二(大正藏 五十卷 三三四項中 以下) 참조) 흔히 '晉本' '舊譯' '六十華嚴' 등으로 불리고 있다. 80권본은 호탄의 승려 實叉難陀(Siksananda, 喜學)가 菩提流支, 義淨 등과 함께 698년에 범본 화엄경을 80권 39품으로 번역 편집한 것이다. 이를 '唐本' '新譯' '八十華嚴' 이라고 부르는데, 이 新譯華嚴經은 곧 700년경(699년) 우리나라에 수용된다.(鎌田茂雄(1965), 『中國華嚴思想史の研究』,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pp.13~17)

81) 北村高(1978), 「ユータン出身譯經僧と華嚴經について」, 『龍谷大學佛教文化研究所紀要』 17, p. 89

82) 『法顯傳』于闐國 '이 나라는 토지가 기름져서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하였고 모두 불법을 받들어 불교가 생활화되어 있었다. 승려는 수 만이나 되었는데 대부분 대승을 배우고 있었으며 모두 衆食을 하고 있었다. … (其國豐樂 人民殷盛 盡皆奉法 以法樂相娛. 衆僧乃數萬人 多大乘學 皆有衆食.)' (이재창(1980), 『法顯傳』, 現代佛教新書 32, 東國大學校佛典刊行會, pp.11~12; 足立喜六(1940), 『法顯傳 - 中亞·印度·南海紀行の研究』, 法藏館, pp.1~14); 宮內廳書陵部圖書寮本 『法顯傳』 校注(1970), 『シルクロード史研究』(1972), 國書刊行會, pp.639~640; 長澤和俊(1971), 『法顯傳·宋雲行記』, 東洋文庫 194, 平凡社, pp.9~13)

83) '… 문자와 법칙은 인도에 따르고 있으나 字體와 筆勢를 조금 고쳐 변화를 보이고 말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 불법을 존중하여 가람이 백여군데, 승려는 5천여명인 바 모두 대승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 (…文字憲章 建邈印度 微改體勢 粗有沿革 語異諸國 崇尚佛法 伽藍百有餘所 僧徒五千餘人 并多習學大乘教法…) 玄奘著, 李羨林校注(1990), 『大唐西域記校注』, p.1002; 玄奘, 權德周譯(1983), 『大唐西域記』, pp.354~355; 慧立·彥棕著, 長澤和俊譯(1965), 『玄奘法師西域紀行』, p.181 참조

84) Angela는 두개의 중요한 도상적인 경향, 즉 광배에 발산된 형태의 화불이 배치되어 있는 이미지와 佛身의 大衣 위에 잘 조직된 표현이 있는 이미지가 융합된 것을 Cosmological Buddha Image라고 하고, 라악사원지(Angela Falco Howard(1986), pls.29, 30)나 키질의 두 예(Angela Falco Howard(1986), pls.29, 30)와 같이 광배에만 화불 발산의 표현이 있고 불신 위에는 아무런 이미지 표현이 없는 것을 놓고 '형식과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간다라의 "Multiplication" 이미지에서 유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Cosmological Buddha Image는 아니고, 시기적으로 보아 키질의 Cosmological Buddha Image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고 있다.(Angela Falco Howard(1986), 『The Imagery of the Cosmological Buddha』, Leiden, E.J.Brill, pp.55~57)

85) 本稿 주 31, 32 참조

부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쩌면 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클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곳 라악사원지의 이같은 이미지에 관해 몇몇 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왔다. 즉 석가모니라는 주장<sup>86)</sup> 혹은 바이로차나(Vairocana)라는 주장<sup>87)</sup>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色身이면서 깨달음 그 자체는 法身이기 때문에 초기화엄경에서는 깨달음 그 자체를 법신이라고 한 것이지 석가모니와 바이로차나를 엄격하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이곳 라악사원지의 이미지가 석가모니를 표현하려고 한 것인지 혹은 바이로차나를 표현하려 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sup>88)</sup>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옛부터 이곳은 화엄사상의 중심지였고, 또 시기는 다소 늦지만 이곳 호탄 주변의 유적지에서 유사한 형태의 광배가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sup>89)</sup>(도 34) 이와같은 이미지가 이후에 화엄사상 주존의 도상<sup>90)</sup>으로 채용되어 사용되었던지 그렇지 않던 간에 화엄사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sup>91)</sup>

어쨌든 라악사원지의 소조불들은 이와같은 대승화엄불교사상의 분위기 속에서 조영되었을 것은 분명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곳 라악사원지의 소조불들은 앞서 든 독특한 이미지에서 뿐만 아니라 상들이 大佛이며 多佛이라는 점에서도 대승화엄불교의 본고장다운 면모를 충분히 과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세번째로는 이곳 라악사원지 소불상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과 동투르키스탄에 있어서 古代 양식의 확립이다. 서역남로의 호탄, 미란 등은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중국, 우리나라로 전해진 최초의 길에 위치한 이른시기의 중요한 유적들이다. 특히 호탄은 타림분지의 여러 오아시스 가운데서도 인도와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장 일찍 인도의 불교문화가 전해졌

86) Angela는 발산하는 형태로 광배에 덧붙여진 化佛의 수인이 석가모니와 연관된 본존상의 자세를 재생산한 것으로 보고 이 불상을 석가모니부처일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Angela Falco Howard(1986), *The Imagery of the Cosmological Buddha*, p.55)

87) Rowland는 이 불상을 Dhāyanibuddha Vairocana라고 보았고(Rowland(1970), *Zentralasien. Kunst der Welt*, Baden-Baden, p.128) Gropp도 그를 따라 이 불상이 Dhāyanibuddha Vairocana 또는 모든 불상의 중심인 Adibuddha Vajradhara일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다.(Gropp, p.214)

88) 이에 관한 이주형교수의 '대승학 발전의 단계에 있어서 석가모니는 오로지 궁극적인 法身, 바이로차나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Rawak과 Kyzil의 이미지는 석가모니, 바이로차나, 아미타, 아축 또는 현재 유행하는 어떤 부처일 수 있다. 그 차이를 구별해 내기는 어렵다'라고한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Ju-hyung Rhi(1991), p.95의 주45 참조) 그러나 주 85에서도 서술하였듯이 Angela는 Cosmological Buddha Image의 원형을 찾으려던 당시 라악사원지의 예를 제시하였을 뿐이며, 결국은 라악사원지의 예는 Cosmological Buddha Image의 원형이 될 수 없음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Angela(1986), pp.55~56) 이교수는 라악사원지의 이미지도 Cosmological Buddha Image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89) 이처럼 光背나 頭光에 작은 불상들은 가득 채우는 도상은 이곳 라악사원지 뿐만 아니라 Dandan-uilik, Akterek, Balawaste 등지에서도 거의 흡사한 상들이 출토된다.

90) 라악사원지의 塑佛像 보다 시기가 늦은 6세기 중엽경 Balawaste에서 출토된 冥想佛(Dhāyanibuddha Vairocana)그림에는 裸體로 표현된 佛身 위에 전면에 걸쳐 일월·보주·범협·금강저 등 밀교의 삼매나형과 통하는 각종의 symbol이 나타나 있다. 이같은 수미산 중심의 세계도와 화엄경과는 교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같이 여래상의 佛身 위에 수미산 중심의 세계도가 그려져 있는 이미지를 화엄교주인 毘盧遮那佛로 본다.(松本榮一, 『敦煌畫の研究』; 吉村恰(1959), 『盧舍那法界人中像の研究』, 『美術研究』 203號, pp.232~235; 石田尚豊(1980), 華嚴經美術의 展開(MUSEUM No.350)

91) 이곳 호탄불상의 사상적인 배경에 관해서는 文明大(1993), 『호탄 불상의 조성배경과 성격』 『실�크로드의 文化』 5卷, 한국언론출판간행회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 그렇기 때문에 타림분지에 가장 먼저 나타난 불교미술양식인 간다라미술이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이 바로 이곳 호탄이며 그래서 이곳 호탄 라악의 소불상은 서역의 어떤 유적지에서 출토된 불상보다도 특히 간다라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실상 쿠산제국과 서역 특히 호탄과의 밀접한 관계, 다시말하면 카니쉬카왕이 호탄, 야르칸드 방면까지 지배하였고<sup>92)</sup> 그로 인하여 특히 이곳 호탄 등지에 문화적인 영향력을 더욱 많이 행사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현재로서는 이를 입증해줄 만한 사료의 부족으로 긍정하기 어렵다.<sup>93)</sup> 그러나 쿠산왕국과 호탄국이 실제로 교통이 있었고 양국간에 서로 정치적 우호관계, 문화적 교류관계가 성립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라악사원지 소불상들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믿는다.<sup>94)</sup>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곳 호탄 특히 라악사원지의 소불상들은 단지 간다라, 동이란의 양식을 수용하고 중국으로 전파하는 중간지의 역할 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호탄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징있는 양식을 산출해 내었고 나아가서는 서역의 고대양식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다. 첫번째 의의에서도 서술하였지만 사막의 한가운데라는 지리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500 여구에 달하는 소불상을 한꺼번에 조성하여 배치하고 있고, 또 그 배치방식에 있어서도 꼼꼼한 계획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도 단지 서에서 동으로 불상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불상에서 보이는 특이한 옷주름선이나 이른시기 간다라나 아프가니스탄의 소불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탄력감이나, 특징적인 옷주름 등은 이곳 라악사원지의 소불상의 특색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호탄의 소불상이 독자적인 양식을 지니게 된데는 그 지리적 환경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 즉 호탄의 위치가 동서로 인접한 국가들과 꽤 먼거리에 위치해 있어 대부대의 통행이 어려워 호탄에 침입하기가 어렵고, 또 인접해 있는 유목민족들 즉 몽고, 티벳의 사람들도 유목에는 별로 적합치 않은 이곳에 별로 욕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으로 호탄은 민족의 변천이 적고, 외국인의 혼혈이 적어 종족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문화에 있어서도 여러지역의 문화를 다양하게 수용하면서 독자의 양식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92) Rockhill(1892), p. 240 ; 王炳華(1991), 『貴霜王朝與古代新疆』, 『西域研究』 1991-1, pp. 35~38

93) 馮志文輯(1983), 『西域歷史編年』(一) 公元前二世界至六世紀兩漢魏晉南北朝時期, 喀什師範學院圖書館編印 및 新疆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1987), 『新疆地方歷史資料選輯』, 人民出版社 참조.

94) 12세기에 편찬된 티벳문의 『于闐國史(于闐懸史)』에는 '카니쉬카왕(迦膩迦王)과 구잔왕과 리올(Li-yul 호탄)의 왕 비자야키르티(Vijayakirti 伏闐耶稀帝王)가 함께 인도에 병력을 들여보냈다' 라는 기록이 있다.(Rockhill(1892), W. W. *The Life of the Buddha and the Early History of His Order*, London:Kegan Paul, Trench,Trübner & Co. p.240 ; 寺本婉雅譯(1974), 『于闐國佛教史の研究』, 國書刊行會, p.34) 이는 쿠산왕국 내지 카니쉬카 1세와 호탄국 내지 그 부근의 나라가 협력 내지 우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VI. 맺 음 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재 중국령 투르키스탄(Chinese Turkistan)의 서역남로에 위치한 옛 호탄국은 중앙아시아의 역사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문화와 종교면에 있어서도 자신의 독특한 영역으로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다. 예술적으로 이 지역은 다양한 영향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스와트계곡이나 또 다른 루트를 통한 서북인도로 부터의 영향, 이란적, 중국적인 영향을 반복되게 받았다. 이와같은 영향관계는 특별히 불교예술에 있어서 '호탄적'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만한 특징적인 양식을 확립케 하였고 나아가 주변지역에 큰 영향을 미쳐 동투르키스탄지역에 있어서 고대양식이 성립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같은 문화적 특징을 지닌 호탄국의 많은 유적지 중에서 본 글에서는 특히 호탄의 동북 50 km 지점에 위치한 라악사원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글은 지금까지 막연히 인도, 서역, 중국 그리고 한국불상과 연관지어 왔던 태도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었고 앞서의 고찰을 통하여 미흡하나마 인도와 중국을 이어주는 가느다란 연결선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본다.

사실상 이곳 서역지방의 소불상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塑造像'이라는 재료자체가 가진 취약성의 문제, 작품에 접근하여 자유로운 관찰, 조사가 어렵다는 문제, 뿐만아니라 이곳 라악사원지 미술에 직접적인 영향이 간취되는 간다라미술 자체에 많은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잘라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이곳 서역남로 라악사원지 塑佛像의 연구는 지금까지 불상동점사상 거의 합몰지구였던 서역지방의 초기불교조각을 규명해 줄 뿐만아니라, 나아가 인도 및 중국초기불교조각사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작업을 시도하여 보았다.

끝으로 사산조 페르시아 미술이 이곳 라악사원지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사원지 조영의 중심이 된 인물 즉 후원자의 문제 그리고 호탄 자체내 토착미술에 관한 좀 더 심도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또 앞으로는 서역북로에 위치한 여러유적들 툼슈(Tumshuk), 키질(Kizil), 쿰투라(Kumtura), 투르판(Turfan) 등지의 소불상의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서역북로의 불상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밝혀본다면 이곳 라악사원지불상을 서술함에 따른 오류가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질 것으로 믿는다.

## ABSTRACT

# A Research on the Clay Sculptures of the Rawak temple site, Khotan(于闐)

Yim Young-ae

Rawak temple, one of the representative Southern Silk Road site, was surrounded by the double wall around the stupa, in the inner and outer part of which hundreds of clay sculptures were arranged. I divided these sculptures into two groups, the first one is the sculptures distributed in the inner part of the inner wall, the second one consists of the sculptures distributed in the outer part of the inner wall and the both parts of the outer wall.

A three-meter high big statue of the first group was made after the typical Gandhāra Buddha and this kind of purity can be seen in all the big statue of the first group. The second group displays the body as like as possible, while succeeding in the mode of the first group. Especially a Buddha whose taut body is stucked to by the very thin robe says the influences of detailed the Mathura techniques in the Gupta period. But the strange line of robe folds is different from the one of the Mathura school in the Gupta period, instead connecting with the great Buddha of Bāmiyān. The Bodhisattva head of the second group is also important because it explains the interconnection with the Tumshuk, Kizil of the Northern Silk Road. Therefore we can say that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second group are attributed to the Indianization of the Gandhāra Buddha as well as the interconnection with Tumshuk, Kizil of the Northern Silk Road. It is not to say that these are based on the Gandhāra mode of the first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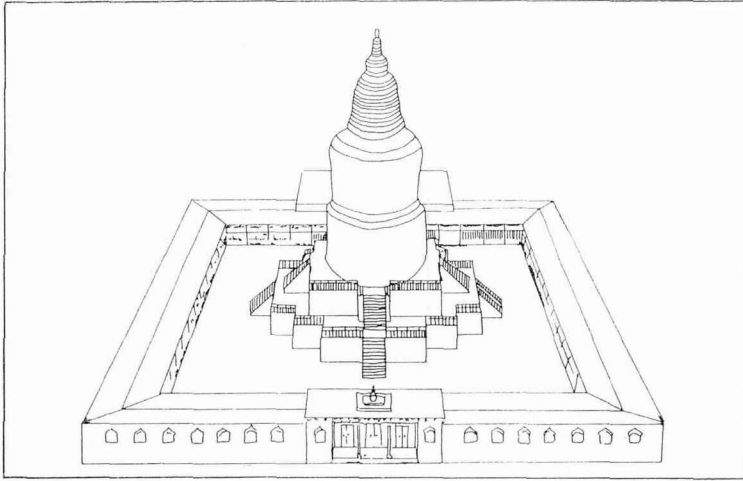
Then it is time to make a periodization. The period of first group should be between the middle 4th century and the first 5th century because it models after the typical Gandhāra pieces. The period of second group can be assumed to from the first 5th century to the middle 5th century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

first one is the formanization of the sculptures in spite of the some existing pure Gandhāra mode, second one is that it describes the body as like as possible. Therefore the period of Rawak temple could be traced back to the period from middle 4th century to the middle 5th century. This conclusion coincides with the time the Buddhism was very popular around the Kho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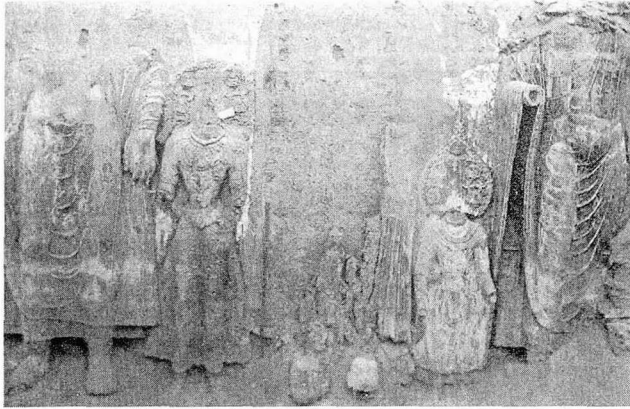
I also would like to raise a possibility that the 'rauraka' (*roruka*, 曷勞落迦, 勞落迦) which appears in the part of Chou-sha-dan-na (瞿薩旦那) of the Record of Western Kingdoms (大唐西域記) was a Rawak temple. When Xuan-Zang (玄奘) travelled this area in the first 7th century, that site was buried so there was nothing he could see. Therefore the closing period of the Rawak temple would be around the 6th period, then we can also suppose the above building period has another evidence.

The clay sculptures of the Rawak temple site reaching about 1000 pieces was deliberately built under the elaborate great plan, influenced by the atmosphere of Hwaōm philosophy (華嚴思想). It not only produced a 'Khotan' charactersitics, but also made a contributin to establish a archaic style of the Silk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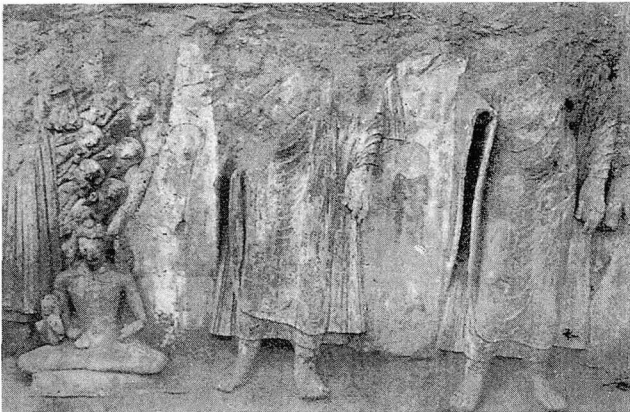




(도 5) 라악사원지 佛塔 추정복원도(朱雲寶(1992), 「絲綢之路上的佛塔」, 『西域研究』 1992年 第2期, 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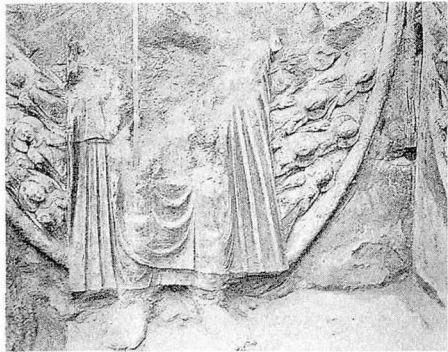
(도 6) 라악사원지 1군 불보살상(R. 1~5)(Stein A. (1907), *Ancient Khotan*, vol.I, fig.61)



(도 7) 라악사원지 1군 巨像(Stein A. (1907), *Ancient Khotan*, vol.I, fig.62)



(도 8) 간다라 불상, 라호르박물관



(도 9) 라악사원지 1군(Stein A. (1907),  
*Ancient Khotan*, vol.I, fig.64)



(도 10) 라악사원지 1군 塑佛像의 광배부분



(도 11) 라악사원지 출토 塑佛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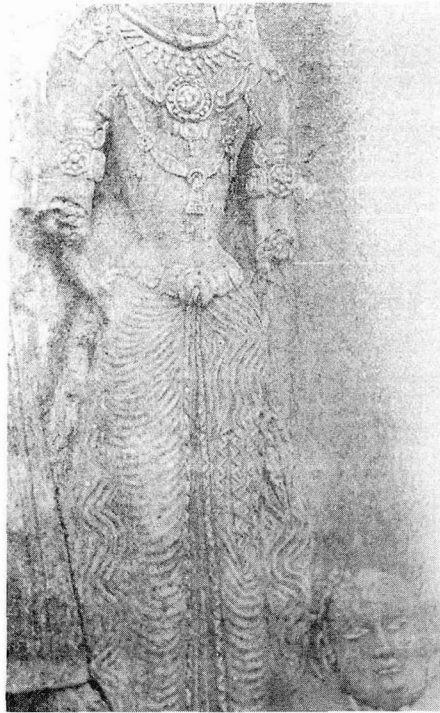
(도 12) 라악사원지 출토 塑佛像, 호탄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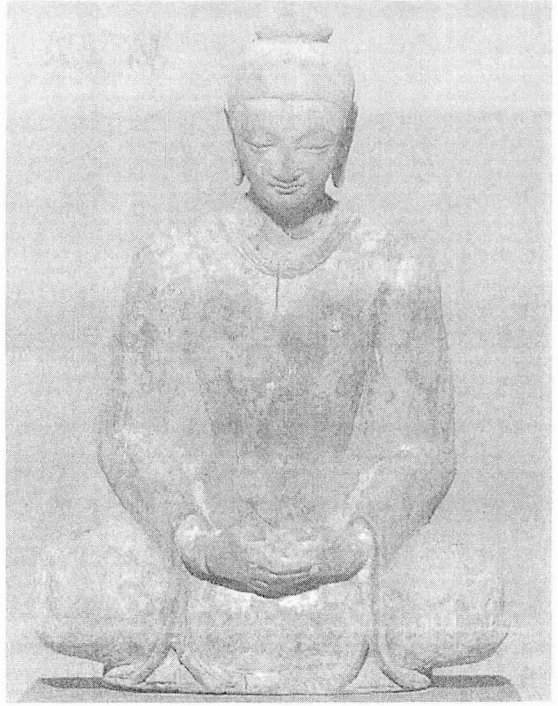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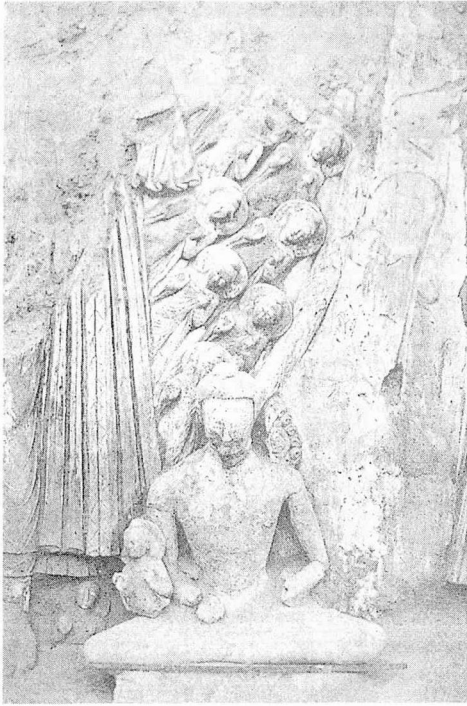
(도 13) 라악사원지 벽화, 炎肩佛像(Gerd Gropp(1974), fig.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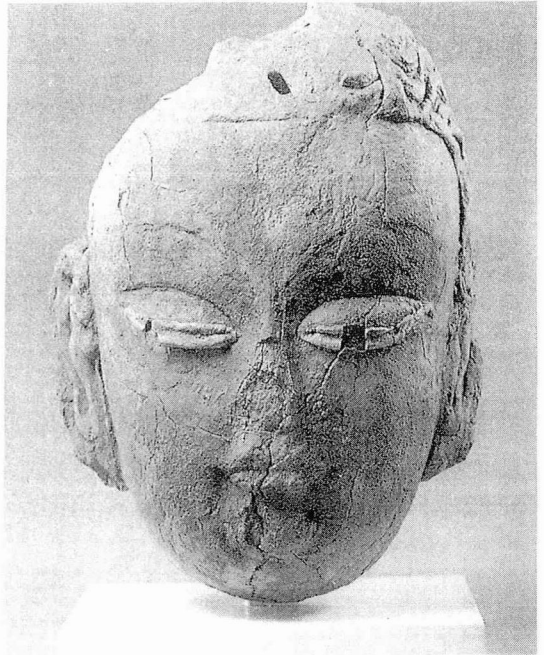
(도 14) 간다라 사위성 신변상, 편암, 마르단(Mardan)출토, 카라치국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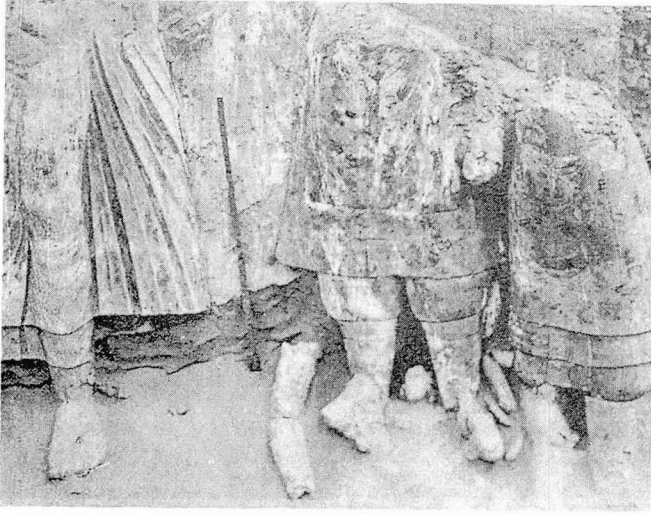
(도 15) 라악사원지 1군 등신대상(Stein A. (1907), *Ancient Khotan*, vol. I, fig.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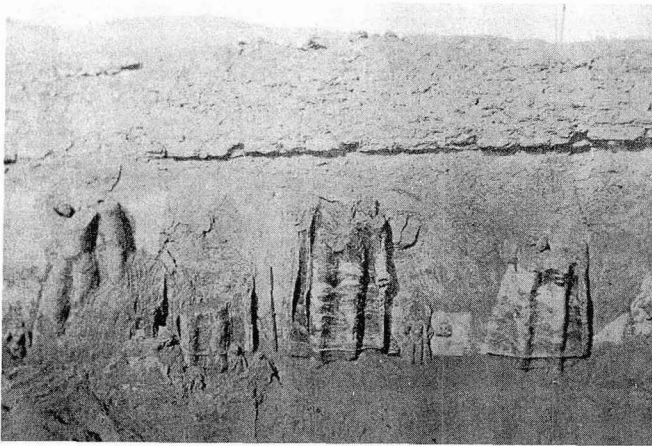
(도 16) 라악사원지 1군의 禪定印 塑佛像(R. 11) (도 17) 퉁숙출토 木造佛坐像, 베를린국  
(Stein A. (1907), *Ancient Khotan*, vol. I, fig. 63) 립박물관



(도 18) 라악사원지 1군 佛頭, 25.4 cm (도 19) 라악사원지 1군 佛頭, 대영박물관 소장  
(Stein A. (1907), *Ancient Khotan*, vol. II, pl. 83)



(도 20) 라악사원지 1군 守門像(Stein A. (1907), *Ancient Khotan*, vol. I, fig.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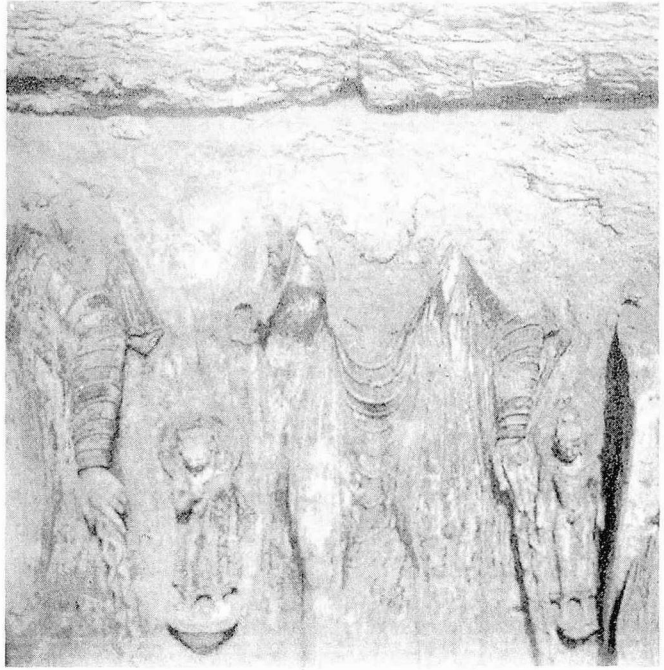
(도 22) 라악사원지 2군 전경(Stein A. (1907), *Ancient Khotan*, vol. I, fig.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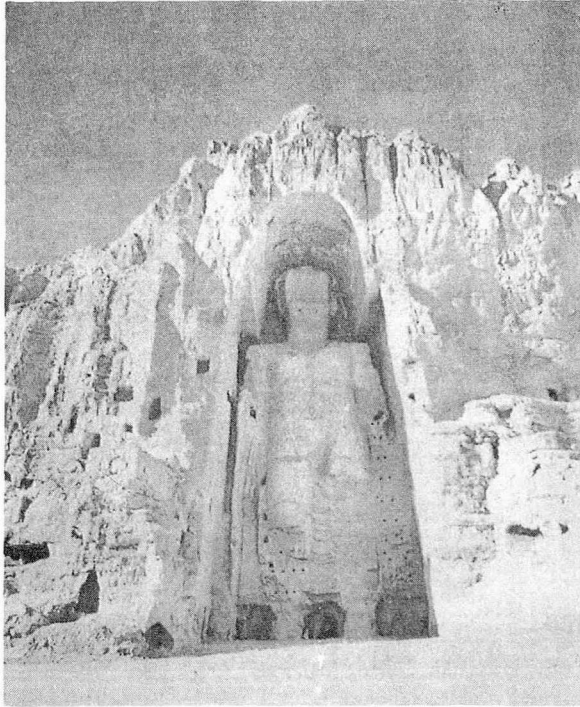
(도 21) 라악사원지 벽화(Gerd Gropp(1974), fig. 34, 35)



(도 23) 굽타조 마투라불상, 높이 145 cm, 캘커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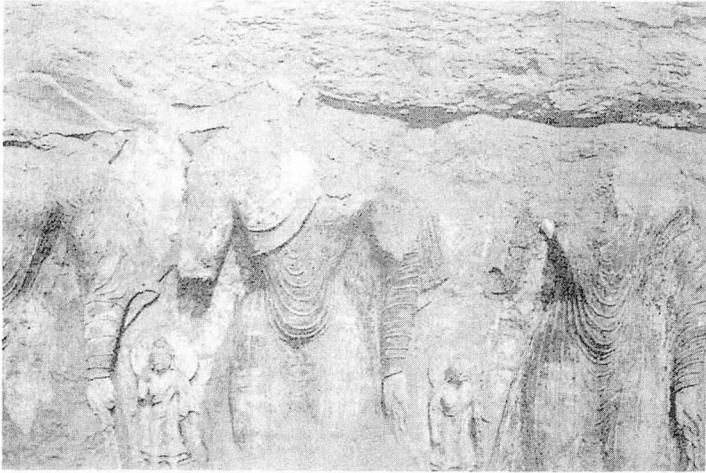
(도 24) 라왁사원지 2 군 巨像(Stein A. (1907), *Ancient Khotan*, vol.I, fig.69)



(도 25) 바미안대불, 높이 53 m



(도 26)炳靈寺石窟 第 169 號窟 西秦建弘年間 佛立像



(도 27) 라악사원지 2군 巨像(Stein A. (1907), *Ancient Khotan*, vol. I, fig. 68)



(도 28) 炳靈寺石窟 第 169 號窟 南壁 22 號 삼존불상중 본존상 및 보살상



(도 29) 라악사원지 2군(Gerd Gropp(1974), fig. 97)



(도 30) 라악사원지 2군 佛頭(Gerd Gropp (1974), fig. 101)



(도 31) 라악사원지 2군 菩薩頭(Gerd Gropp(1974), fig.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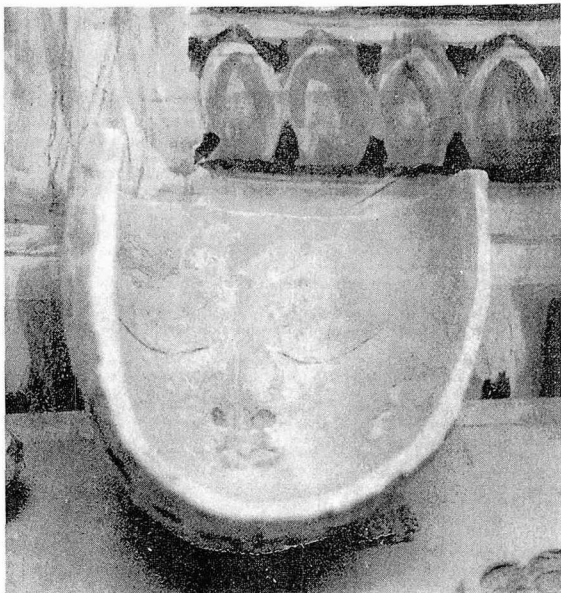
(도 32) 톱속출토 보살두, 동경국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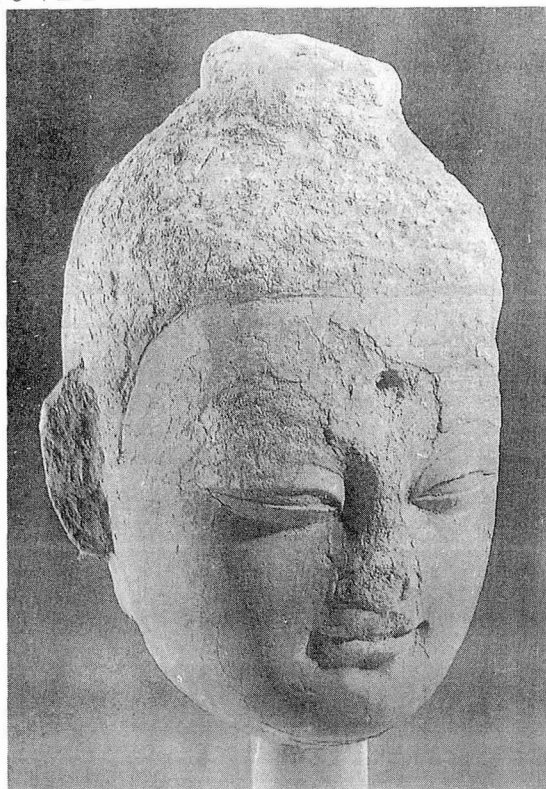
(도 33) 키질출토 보살두, 베를린국립박물관



(도 34) 塑造光背斷片, 단단-일릭출토, 6~7세기, 길이 34.7cm, 폭 28.5cm, 대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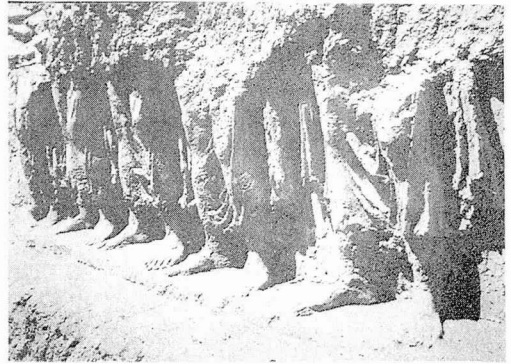
(도 35) 호탄출토 소조틀, 호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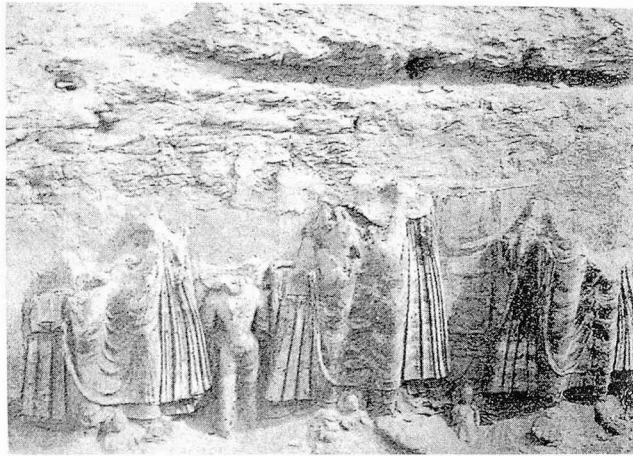
(도 36) 塑造佛頭, 호탄출토, 높이 37cm, 국립중앙박물관



(도 37-1) 모라-모라두 소조불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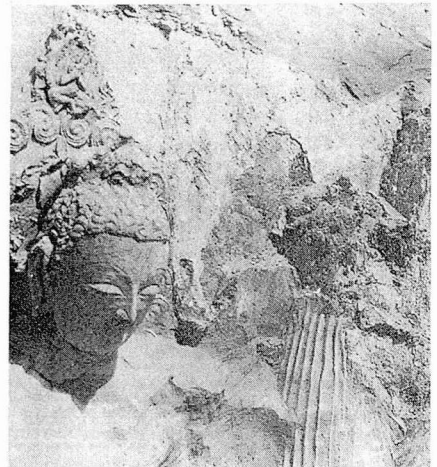
(도 37-2) 테페-갈란 소조불입상



(도 37-3) 라악사원지 불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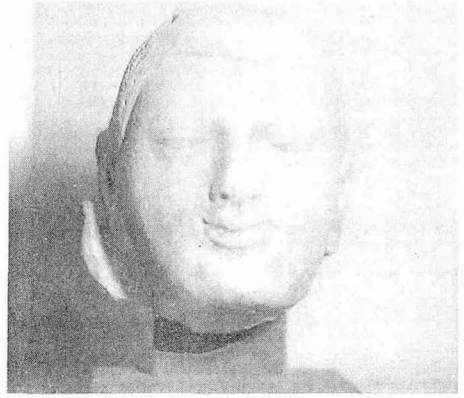
(도 38-1) 자울리안 소불상



(도 38-2) 라악소불상



(도 39-1) 모라-모라두출토 佛頭



(도 39-2) 라악사원지출토 佛頭,  
대영박물관



(도 39-3) 미란사원지 佛頭



(도 39-4) 병령사석굴 제 169 호굴 佛頭